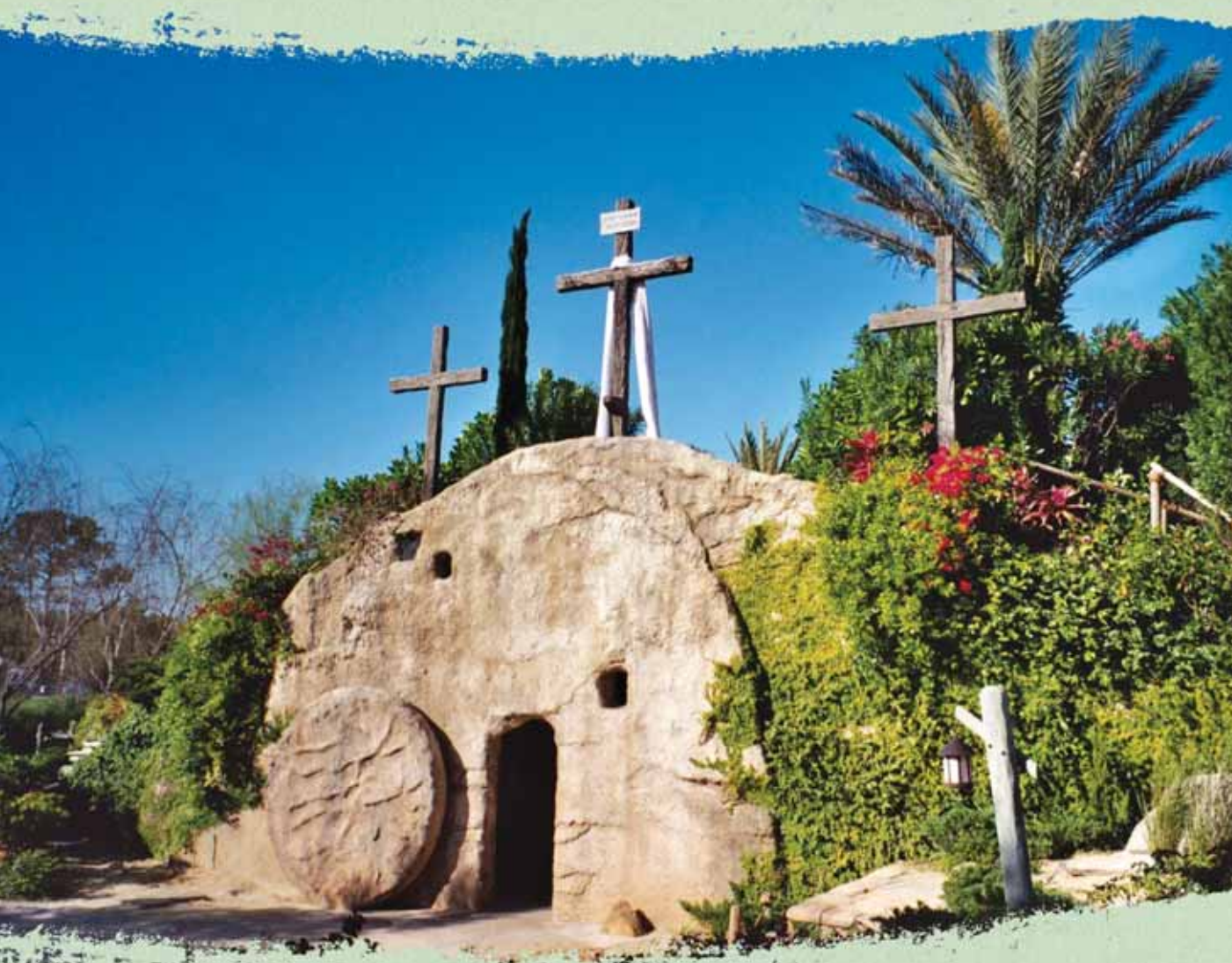


새문안

2012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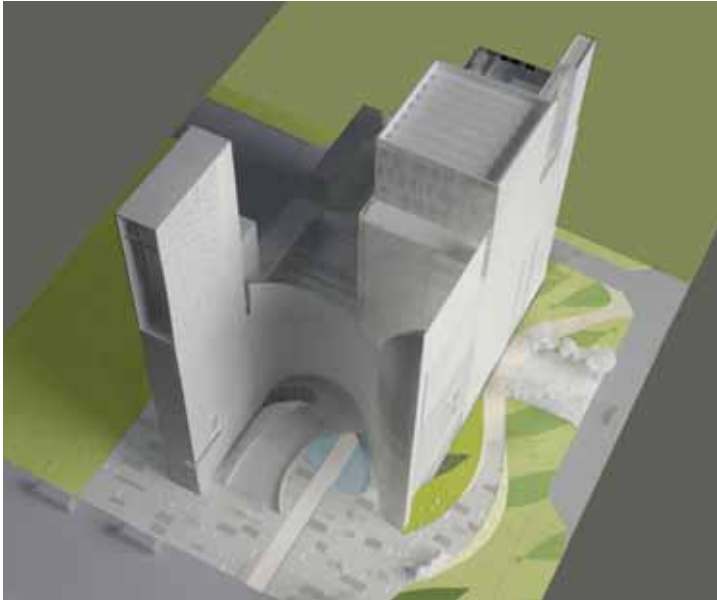


: /
1, 2 : /
:
: 3.11 1

2012
04

1887 9 27

새문안 광장에 대한 소망



가

가

가

가

가

가

새

가

가



* 새문안교회는 1887년에 창립된 한국 최초의 장로 교회입니다.

연중기획

02 새문안강단 | 부활이 있기에 · 이수영 담임목사

교회소식

- 04 부활절 특집 | 부활 그 역사적 사건
부활절과 나 · 나영호 안수집사, 이계희 권사, 임숙빈 집사, 전종우 집사
김희수 집사 전관식 집사, 김성애 자매, 호양수안독 형제
- 12 선한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 지혜롭게 행한 다윗 · 이주형 목사
- 13 성경의 배경사 | 노아의 홍수 · 송갑준 집사
- 14 새성전건축 뉴스 · 최문기 권사
- 15 새성전건축 기도문 · 남양희 장로
- 16 교육1부-교육2부 새성전건축 간담회 · 김재우 집사, 최요한 전도사, 강승운 전도사
- 20 새문안의 보물⑨ | 언더우드 기념관 · 김홍배 집사
- 22 양육과 섬김 | 사회선교 지침 · 이승리 권사
꿈꾸는 구역 · 최경숙 집사
제1기 바울전도학교 · 전해용 집사 문영환 집사
전도폭발 간증문 · 임남순 집사

선교색션 땅끝까지

- 28 일본선교 현장 | 담임목사님 일본 쓰나미 지역 방문기 · 유재현 장로
- 32 3·11 대지진 1주년 설교 | 담임목사 샌다이 설교문
- 34 사회와 기독교 | 함께 어울어요 · 이철용 집사
내 친구를 구해 줘요 · 조병현 집사
말씀붙들고 구원을 · 김요람 집사(가명)
칠흑 속에서 만난 빛 · 이지연 집사
- 44 언더우드선교훈련원 강좌 지상중계 | 한철호 선교사 이야기 · 김두연 집사
- 47 국내선교 현장 |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예배 · 강진환 집사
남선교회로 모이자 · 최정선 장로
- 51 해외선교 현장 | 몽골인예배 7주년 감사예배 · 박종학 안수집사, 남토야 성도
- 54 선교지 소식 | 볼고그라드 소식 · 정균오 선교사
- 57 평신도 단기 선교사 소식 |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 · 강정은 선교사

교회학교 마당

- 60 교회학교 뉴스 · 최요한 전도사
- 62 사진으로 보는 교회학교 | 아기학교 탁아 1·2부, 유아2부, 유치2부
- 66 이야기터 | 무지개학교 개강 · 최효정 전도사
초등 456 1부 수련회 소감문 · 이재빈 학생
초등부 온 기도회 · 김은선 전도사 김동균 엄마 심소형 엄마
- 70 교회학교 소식 | 어울림 단계별 통합교육 · 교육1부 제공
어울림 가정예배 현장을 찾아 · 이영란2 집사

젊은이 광장

- 72 새청선교 현장 | 청년1부 동계수련회 · 유지는 성도
주전자 소개 · 김재형 성도
청년3부 소개 · 김주원 회장

믿음으로 사는 삶

- 76 생활 속의 신앙 | 흥흥한 고백 · 금미주 권사
아기학교에서 주는 큰 선물 · 최기향 권사

찬양하며 감사하며

- 79 찬양단소식 | 고성호 집사 인터뷰 · 유재현 장로
리조이스 · 김지영 집사
- 11 청소년문화선교부 음악회 |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 오후 · 나사라 집사

새문안 문화마당

- 83 변경된 기독교 용어 바로쓰기(42) · 편집실
- 84 새교우앨범
- 86 생명의 쌀
- 87 성경퀴즈(197) · 서경애 권사
- 88 교회자료관 | 모퉁이들 서비스 시작
- 89 독자의 소리 · 편집실

※ 《새문안》지는 환경재생용지(매트지 80g)를 사용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고전 15:12-19)

이수영 담임목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과학문명과 경험주의와 합리적 사고의 지배하에 있는 오늘날뿐 아니라 오래 전 시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아테네 사람들도(행17:21) 사도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하자 그를 조롱했습니다(행17: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고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힘주어, 부활의 확실성을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는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본문 12-13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

리실 것이었기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본문 15-16절)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14-15)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본문 17-18절) 합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본문 19절)

사도 바울은 또한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해주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준다고도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불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15:55-57)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남다른 소망이 있고 남다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구원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암울한 세대, 불의와 부패와 폭력이 결속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울분케 하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된 삶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기쁨 가운데 의롭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과 재물과 불의가 단단히 엉키고 굳어져서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끊임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각계각층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불의를 고발하며 개혁을 외치려 해도 계란을 쥐고 거대한 바위 앞에 선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근거 없는 험한 말 지어내서 사람을 인격살인하기를 즐기는 자들도 너무나 많으며 상소리와 욕지거리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인기와 권력을 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숨을 쉴 수 없이 되었으며 정의로운 사회는 다 죽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권력과 거짓이 결탁하여 진리와 자유와

희망을 압살했던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모든 세상의 불의한 힘과 사람들의 악한 계략이 다 헛된 것임을 증명해주셨으며, 진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불의와 거짓의 일시적 위세 앞에서 우리가 좌절과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길게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끝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고전15:58).

부활의 달 4월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의와 진리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되살아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희망과 평강과 희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 세상을 향하여 바르고 힘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희망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부활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세상 종교와 다를 뿐이다. 이 세상 성인(聖人)이나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다.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며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며 장차 우리가 죽은 후 체험하게 될 미래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 (정리: 민현식 집사, 흥보출판부 차장)

마지막 날의 예수님의 발자취

<주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

<월요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고치심

<화요일·수요일>

제일 큰 계명, 과부의 두 렵돈, 말세의 징조 예언, 열처녀 비유

<목요일>

유월절 준비 - 유월절 만찬
제자들간의 논쟁 -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주님의 만찬(성찬식)
예수님의 고별사 - 참포도나무의 비유
성령에 대한 약속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제자의 배반과 잡히심

<금요일>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심 -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
가야바의 관저에서 빌라도의 재판석으로
빌라도에게서 헤롯의 궁전으로
헤롯의 궁전에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고 함. 빌라도 부인의 호소/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음. 빌라도가 사형선고를 내림

예수님께 군인들이 가시관 씌우고 침뱉고 조롱함. 유다의 자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심
죽어가는 강도들의 고백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이 그의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함
어두움이 깔림
예수님의 죽음 - 성전 휘장이 찢기고 무덤 열림
백부장의 고백, 십자가에서 내림, 장사 지냄

<토요일: 안식일>

<안식 후 이튿날(주일): 부활하신 주님>

지진이 일어남
예수님 몸에 기름 바르려고 여인들이 무덤에 움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알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도마가 있을 때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심
고기를 기적적으로 낚으심
500인에게 나타나심
야고보에게 나타나심
승천시에 나타나심 **새**

출전 | 종합성경연구, 나침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상칠언(架上七言)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눅 23:40-42)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눅 23:39)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눅 23:36,37)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막 15:31)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 27:39,40)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막 15:2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첫째 말씀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막 15:25)

육 시

12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막 15:33)

구시(오후 3시)

3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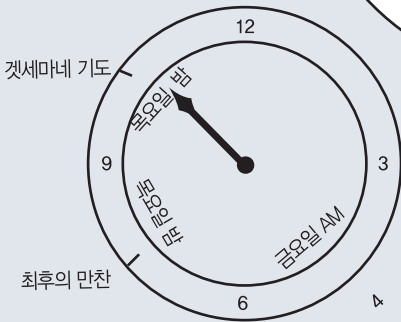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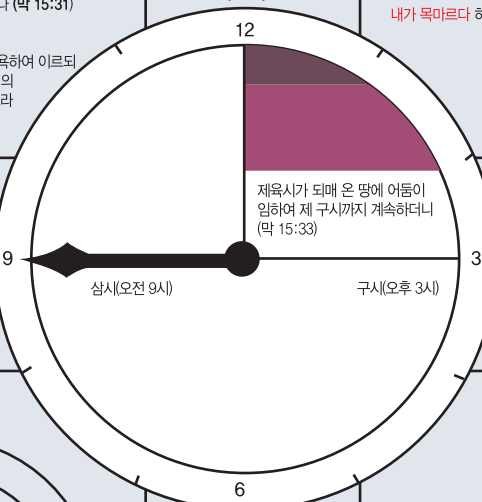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셋째 말씀



다 이루었다 (요 19:30) 여섯째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 23: 46) 일곱째 말씀

즉시 뒤따른 사건

1. 최후의 만찬
2. 갓세마네
3. 잡힘
4. 가이바의 집
5. 빌라도 앞
6. 헤롯에게 보냄
7. 빌라도에게 돌아옴
8. 선고받음
9. 십자가에 못박힘

- 지진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마 27:51)
- 무덤들이 열림(마 27:52)
- 백부장의 고백(마 27:54)
- 무리들의 뉘우침(눅 23:48)
- 도적들의 다리를 꺾음(요 19:31, 32)
- 예수의 옆구리를 찌름(요 19:34)
- 무덤에 장사함(요 19:38-42)
- 무덤을 봉하고 파수꾼을 세움(마 27:66)

출전 | 김춘범 편저,
예수님의 발자취, 성광문화사

부활 그 역사적 증거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그가 창조한 세상에 의해 버림받으셨다(요 1:10). 그는 유대인이었으나 자기 땅에 오매 저들이 영접하지 않아 자기가 일으킨 민족에 의해 버림받으셨다(요1:11). 어린 시절을 보낸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버림받았다(눅4:16-30). 자신의 친형제들에 의해 버림받았다(마13:55,56). 부활하신 후에야 저들은 믿었다. 그가 양육한 제자들에 의해 버림받았다(마14:50).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영원하신 아버지께 의해 버림받으셨다(마27:46).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셨다(롬8:32).

찢어진 성전의 휘장

찢어진 휘장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뜻한다(히10:19-22).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벧전2: 59).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분리가 폐지되었음을 뜻한다(엡2:13-18).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것은 예언적, 자발적, 희생적, 대속적 죽음이였다.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죄없는 완전한 의인만이 속죄할 자격이 있다. 인간은 아무리 성현이라도 남을 대속할 자격이 없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기에 속죄의 자격이 있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며, 죄를 장사지내고,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폐기되고, 율법이 저주에서 속량되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받고, 누구나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정죄가 영원히 해방되고,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무덤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미혹당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교회는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증거는

빈무덤(눅24:3)과 깨워진 세마포(요20:3-8)이다. 부활 후에 막달라마리아에게 위로자로(요 20:16),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로(요 20:19,20), 베드로에게 영원한 친구로(눅 24:34), 엠마오 두 제자에게 다정한 교사로(눅 24:13-32),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평화의 수여자로(요20:19-24),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자로(요20:26-29), 고기잡으러 간 7인의 제자들에게 염려해 주는 자로(요21:2-23), 일시에 500 형제들에게 부활과 생명으로(고전15:6), 야고보에게 확신 주는 자로(고전15:7), 열한 제자들에게 지도력과 권위의 화신으로(마28:18-20), 능력의 수여자로(행1:4-9), 바울에게 승리자로(행 9:3-6), 스테반에게 천국의 환영자로(행7:55), 성전의 바울에게 보호자와 위로자로(행22:17-21), 밧모섬의 요한에게 교회의 머리로(계1:10-19) 나타나셨다는 증언이 주님 부활의 생생한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다. 그는 해골의 곳(갈보리)으로 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동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다. 그는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에서 영광의 상징으로, 죽음의 표적에서 부활 영생의 표적으로 만드셨다. 십자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 주며, 진리의 빛을 비추며, 근심과 고통과 죄악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마음을 밝히고 참 생명을 줄 것이다. **새 정리 | 민현식 집사**

*2012년 부활절을 맞아 교우들의 삶 속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교우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새겨져 있는지 부활절의 추억은 무엇이 있는지 은혜로운 성구는 무엇인지 짧은 글을 부탁드렸다. (편집자 주)

교통사고에서 깨달음 주신 하나님

세상 어둡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믿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부활절을 맞이하며 순간적 교통사고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지난 1월 9일 저녁 10시반 경 우리 부부는 신년 모임에 참석 후 귀가중 서판교 4거리 부근에서 총알택시에게 두 번이나 받치는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내 차는 수리불가로 폐차처분될 정도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부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혹시 후유증이라도 있을까 해서 병원진단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 없이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흑암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전에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이 없으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보다 하고 낙심했고 기쁠 때만 기뻐했고 힘들 때만 기도했으며 특별히 감사할 때만 감사했던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지만 이번 교통사고를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새롭

게 깨닫게 되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케 하리로다” (시편 43:5)



나영호 안수집사

내 인생의 다마스쿠스 가는 길

온 인류를 통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방인을 위한 사도로 크게 쓰임 받게 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장면은 너무나 극적으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는 유명한 장면이다. 나는 이렇게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의 다마스쿠스 가는 길은 성경을 통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 가슴과 영혼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서였다. 성경을 읽으며 12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3년간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으나 끝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주님을 보며 모두 실망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를 보는 듯하

였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낙약하고 보잘것없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180° 변화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게 되었을까?

주님의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의미를 튼튼히 뒷받침하며 12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완벽한 마침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부족함 글로는 그 놀라운 사건의 감동을 표현하기에 부족하지만 헨델의 메시아 연주를 마음 속에 떠올리며 부활의 아침을 맞는다.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이계희 권사

은퇴 후의 삶을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임숙빈 집사

42년 초등학교 교직을 퇴직한 지 1년을 맞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 아동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현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우회 선생님들과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던 생각이 난다.

이제 매일매일 병원 선교, 노방 전도, 호스피스 봉사로 바쁜 가운데 부활절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한층 새롭기만 하다. 다람쥐 쳇바

퀴 돌듯 지내온 직장생활을 떠나 주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퇴 후의 제2의 삶은 바로 내게 부활의 삶과 같음을 사순절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죄와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게 은퇴 후 봉사의 삶으로 새롭게 열어 주셨다. 전도의 능력도 불붙듯 주시고 교회에도 새성전건축, 새생명운동에 참여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갈망한다. “나는 여호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금 실천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겹으로 감사했던 부활절



전종우 집사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 사우디에 가서 근무하던 1985년. 출산 예정일을 전후하여 매일 동전 투입식 국제공중전화로 초조히 소식을 묻던 어느 날, 드디어 장모님으로부터 딸을

낳았다는 말을 들은 순간의 아찔했던 감동!

부활절 주일 아침나절의 일이었다. 현지에서는 이슬람력에 의해 평일인데다 더위가 후끈한 오후여서 부활주일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독한 난산이어서 아내는 과다 출혈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아침에 산모도 살리고 건강한 외동딸을 선물로 주셨으니 겹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가정과 아내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던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딸아이도 부활절에 생명을 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뜻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었던 “아가의 생일”이란 출시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읽어 본다.

부활절 아침 / 햇님이 방긋 떴을 시각에 / 아가야 / 네가 태어났단다
주님의 은혜 고마워 / ‘은혜의 동산’ (惠園)이라고 / 아가야 / 네 이름을 지었단다
이 동산에 /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 아가야 / 네 생일은 영광스런 부활절이란다.

고교시절 부활절의 추억

고등학교 시절 고난주간 일이다. 기독교학생부장이었던 나는 부활절을 맞아 삶은 달걀을 학교 선생님들께 드리며 전도하였다. 100여 명 부원 중 모범생 몇 명에게 삶은 달걀과 사영리를 갖고 교무실로 가서 한분 한분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달걀과 사영리를 전했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선생님들과 교무실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기독교도 아니고 매우 엄한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함은 쉽지만은 않았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명 선교단체 소속의 우리 기독교학생부는 매일 점심시간에 각자의 도시락을 갖고 와 지하 정독실에 모여 찬양하고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점심을 했다. 지하에 올려 퍼지는 변성기를 맞은 사춘기의 남학생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는 아직도 귓전을 맴돈다. '세계선교' '나라와 민족과 열방' '북한선교' '학원복음화' '부산복음화'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외치던 기도제목이었다.

1년에 한번 있는 학교 학예전은 전 부원이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도시락 없이 모여 기도하고 5교시를 맞았다. 야간자율학습 전 어두워질 때면 학교앞 교회의 네온십자가를 바라보며 등나무에서 임원들과 기도했던 기억도 난다. 그러나 지금의 내 생활은 나

태와 교만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다. 정작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사순절을 맞아 고교시절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신앙 훈련을 한 고교 시절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비로소 사는 '주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했다.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치열한 투쟁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강력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또 한번 다짐해 본다.



김희수 집사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예수님

2005년 겨울, 동창들끼리 지방에 갔다 오는 도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어 논길로 추락한 사고가 났었다. 나는 기절했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증상을 입어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지방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몇 달 간 수술과 입원치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느끼셨던 고통과 부활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집사님께서 병문안을 다녀가신 후에 그분과 나눴던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예수님을 알려던 열망을 가지고 있던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갈증을 풀어 주시며 만난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였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이제 내 삶의 큰 기쁨이자 빛이 되어 그 은혜로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되어 감사할 뿐이다.



전관식 집사

달걀 축제의 날에서 성령 축제의 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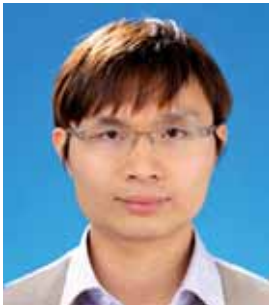
김성애 자매 (청년 1부)

내게 부활절은 달걀 포장하고, 달걀 먹고, 친구들에게 달걀 인심을 베푸는 ‘달걀 축제의 날’이었다. 달걀을 포장하지 않게 된 후부터 부활절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 것은 ‘부활절=달걀’이라는 의식만 남았기 때문이

다. 예수님이 큰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달걀을 나눠주었고, 매우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임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것만이 부활절을 즐기는 것인 줄 알았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것 말고도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

은 과학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믿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기독교 서적, 신앙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어떤 길이 빠를까요? 뭘 선택해야 맛있는 밥일까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성령님께 얘기하고,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와는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었음은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셨기 때문이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이 분리되면서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부활절은 나에게 ‘성령 축제의 날’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내 가까이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 되었다. 이번 부활절도 이 사실을 깊이 감사하면서 보낼 것이다.

부활절에 새로 태어난 나의 삶



호양 수안 독 형제 (hoang xuan duc, 황선덕)

고향에 간 주말이나 명절 때는 나만 혼자 기숙사에서 있었다. 그 때문에 날 버리고 가신 부모님을 싫어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한국에 와 부모님과 결합해 살기 시작했지만 15년 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은 부모님과 살다보니 갈등이 생겨 거의 매일 싸움이었다. 결국은 기출해 공사장, 공장, 농장 등에서 막일하며 고생스러운 나날을 지냈다. 어머니께서 밥도 안 들고 늘 울기만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고통

나는 베트남 북부에서 태어났다. 15년 전 부모님이 가정형편 때문에 한국에 오시고 나만 홀로 베트남 남부로 공부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부모님 없는 생활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친구들한테 부모 없다고 멸시받고 친구들이

스러웠지만 너무 창피해 감히 만나지 못했다.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투성이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곤 했다. 3개월 후 어느 주일, 어머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오셨다. 수척한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같이 새문안교회 베트남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운우 목사님의 설교 “사망과 부활”을 듣자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내 평생에 가장 감동적 설교였다.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더 이상 주님과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자 한없는 기쁨이 솟아났다. 그날이 2009년 4월 부활절이었다. 그 후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 주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치욕스러운 죄의 삶을 살았겠지만 주님의 부활은 내 삶의 부활을 이루어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새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뿐이다. ㉔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의 오후



마지막 꽃샘추위가 물러가려고 하는 3월의 마지막 주일, 청소년문화선교부가 주관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의 오후」음악회가 언더우드 교육관 1층 친교홀에서 열렸다. 2006년에 첫 음악회를 연 이래 2011년부터 새롭게 단장하여 매달 한번씩 개최되는 이 행사는 이번 달은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작은 음악회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집사(6교구)는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악가로, 특히 우리 새문안교회의 예본찬양대 부반주자로, 그리고 새벽찬양대 반주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날의 프로그램은 연주자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예배자로서, 작곡가로서(실제로 김정은 집사는 〈Moment Music〉이라는 연주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전통 클래식 연주로서 여러 교인들 앞에 선보인 특별한 무대이기도 했다. 현정숙 권사의 시작기도와 심현아 집사의 소개에 이어 첫 번째로 선보인 곡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온 천하 만민 우리러〉였다. 익숙한 멜로디를 밝고 경쾌한 도입부와 함께 재즈풍으로 편곡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한 곡으로 연주자 자신이 직접 편곡한 곡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선보인 곡들은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재즈연주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선곡이었다. 두 번째로 연주한 곡은 연주자가 작곡한 〈가을의 전설〉이었는데, 동명의 영화를 모티브로 한 곡이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아

름다운 대자연과 따뜻한 가족애,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 있는 잔잔한 곡이었다. 세 번째 곡인 피아졸라의 〈알프레도 고비의 초상(Retrato de Alfredo Gobbi)〉는 피아졸라의 친구로 존경하던 바이올린 주자이며 악단을 두고 활약한 알프레도 고비를 칭송한 곡이다. 피아노 한대 만으로도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곡으로 흥겨운 탱고리듬으로 청중들을 절로 들썩이게 하는 연주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의 작품들이었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의 세 번째 곡인 〈달빛(Clair de Lune)〉은 잔잔한 호수 위로 흐르는 아름다운 달빛의 파장을 표현한 듯한 곡으로, 주일날의 분주함을 잊게 하는 정적의 순간이었다. 이어진 〈기쁨의 섬(L'isle Joyeuse)〉은 만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노다메 칸타빌레'에도 수록된 곡으로 젊은 층에게도 잘 알려진 클래식 곡이다. 인상과 화가의 그림들이 연주와 함께 스크린에 보여져서 또 다른 시각적인 기쁨을 주기도 하였다.

앵콜 곡으로 연주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마지막에는 청중들이 다 함께 부르며 작은 음악회를 마쳤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길게 감상했으면 하는 여운이 남는 음악회였지만 이번 달에 또 다른 연주자로 찾아올 「음악과 함께하는 주일의 오후」프로그램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4월은 22일(주일) 영어예배(SEM) 찬양팀 리더인 소프라노 이재진 집사(4교구, 이창준 집사 부인)가 마련하는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 글 | 나사라 집사**



4월 22일 소프라노 이재진의 작은음악회
숙명여대 성악과 졸업
Manhattan School of Music 대학원 수료
새문안교회 영어예배(SEM) 찬양팀 리더

*올해의 교회 표어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벧전 2:12)'이다. 성경에서 선한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연재한다.(편집자 주)

지혜롭게 행한 다윗

우리가 지혜로운 왕을 일컬을 때 솔로몬 왕을 떠올리지만 성경에는 다윗 왕도 포함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온다. 사무엘상 18장 안에서만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온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사무엘상 18:14,15)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므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형통한 삶을 갖게 되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도 지혜롭게 행동해서 형통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사울은 아마도 다윗의 용맹보다도 지혜로운 행동에 더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한다. 위기 상황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했던 자신과는 달리 다윗은 침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담담히 직면해 나갔다. 그 차이점이 사울이 다윗을 더욱 시기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 점점 균형 감각을 잃어 갔고 다윗은 특유의 유연함으로 위기를 넘겨갔다. 그것은 확실히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다윗은 전쟁에서도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전쟁을 이끌었으며 거듭되는 승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주었다. 결국 다윗은 많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지지를 받으며 유다 왕을 거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글 | 이주형 목사

잠언 1:7은 분명히 선포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온갖 지혜들을 내세운다. 그러나 성경과 다윗이 보여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갈구한다. 그때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모본을 잘 기억해서 교훈을 삼는 것이다. ㉔

노아의 홍수

「창세기」 제7장-8장의 대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은 매년 범람한다. 가을과 겨울에 내리는 비는 북쪽 높은 산지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린 물과 합쳐져 많은 양의 물을 흘러보낸다. 이때의 범람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때로는 너무 지나쳐 홍수가 된다. 이에 사람들은 범람에 대비하는 동시에 건조한 땅에 물을 대기 위한 운하와 제방 등 인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노아의 홍수는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의 전설과 아주 비슷하다. 기원전 1000년대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와 <길가메쉬 서사시>가 그 예이다. 특히 <길가메쉬 서사시>의 '바벨론 홍수'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의 홍수'와 매우 흡사하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며 이곳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해간 시기는 BC 1750년경이라고 한다.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은 시기는 '탐세스 2세(BC1290-1223)' 때의 일로 이 시대에 모세가 출현했고 구약성경은 모세가 출현한 때보다 더 늦은 BC 1000-BC 500년경에 씌어졌다고 한다. '길가메쉬의 홍수' 이야기는 BC 2000년경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리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원초적인 기록이 아

니란 것쯤은 예상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설화는 독자적인 기록이 아니고 이러한 전설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의 기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전설 혹은 설화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전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7000년 전 최종 간빙기 시절, 100m 이상 수위 차이로 보스포러스 지협이 붕괴됨으로써 엄청난 바닷물이 밀려들었던 것을 갖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한 고대인들이 보며 '대홍수'로 기록한 것이 노아의 홍수라는 학설이 있다. 현재 흑해에서 발견된 해저협곡의 존재가 그것이다. 본래 지상에서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생기는 협곡지대가 해저에서 발견됨은 적어도 그 깊이까지 해수면이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육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인데, 간빙기 시대의 수위 저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사용해 연대를 측정한 결과 7000년 전으로 밝혀졌다. 그 시대에 인류의 농경문명이 시작되면서 방랑이 아닌 정주형 도시가 세워지고 거기에 대홍수가 덮친 것을 전설, 전승이라는 형식으로 후세에 남기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새 자료 제공 | 성경 공부반 (성경 배경사). 정리 | 송갑준 집사 / 성경 배경사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금요 저녁 7시 교육관 지하 1층 미션홀 성경공부반을 찾으세요.**



글 | 송갑준 집사



다윗의 열심과 정성으로

새성전건축



사순절 둘째 주간 중에 열린 3월 첫 수요일에 배는 새성전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드렸다.

지난 3월 8일 건축위 기획행정분과위원장 김용담 장로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이수영 담임목사는 예루살렘성전 봉헌 기념예식에서 사용한 예식문이나 기도로 추정되는 시편 132편을 인용, 말씀을 전했다. 시편 132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정성을, 후반부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수도를 옮겼다.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을 생각을 했다. 예루살렘을 단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막 특히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뜻을 품었던 것은 매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고 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새성전건축을 앞둔 우리는 웅장한 성전을 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확실해지며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자고 가르쳐주셨다.

담임목사님의 설교 후, 건축위 홍보분과에서

만든 동영상물을 상영했다. 장애교우들의 새성전건축에 대한 희망의 소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것이었다. 장애교우들이 예배당, 식당, 화장실 등으로 장소를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에 휠체어를 수월하게 넣을 수 있도록, 전망 좋고 푸른 잔디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도록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영상 제작은 김진 성도와 김택승 성도가 담당하고 있다. 이어서 열린 새성전건축을 위한 합심 기도회에서 3교구 총무 김태기 권사는,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깨달으며 성전건축의 시종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되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김 권사는 또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후, 설계자와 건축위원들과 전문위원들과 협력회 사들에게도 더욱 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합심기도회에서 두 번째 제목의 기도를 맡은 제1남선교회 부회장 문영목 장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축재정으로 건축헌금을 조성하는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국내외 많은 기관과 해외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건축재정이 마련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 또 교회주변 토지주인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인건축사무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스러운 제단이 준비되게 하시며, 모든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한 후,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될 감리교신학대학으로의 이전계획과 실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이 날 기도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성도들에게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집 <하나님이 새문안에 주시는 새 예배당: 그 은혜를 나누는 기도(1)>를 배포했다. 새

취재/글 | 최문기 권사, 새성전건축위 홍보팀

역사에 길이 남을 성전 건축을

우리의 앓고 서는 것을 아시며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 당회원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시작하고 준비해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준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행여 너무 앞장서서, 신중히 생각하며 조심하는 많은 생각들에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애써 노력하여 내놓은 사안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며 한 형제이오니 서로서로 칭찬하며 이해하며 협력하며 진행되어 가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당회가 하나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됨을 믿사오니,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도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당회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자기가 가진 두 렷돈 전부를 바친 과부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부지를 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적정가격에 서로 타협하며 아름다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입자금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건축의 걸림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헌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우리 새문안교회에 복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설계자에게 더 큰 믿음과 영감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잘 나타나게 하시고,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흔적이 담기게 하시며, 견고하고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시고,

어떤 착오나 실수함이 없도록 섬세하신 주의 손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종 인허가 취득과 시공회사 선정도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고 준공과 입당에 이르기까지 어떤 악의 세력이 엄습하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는 첫 주부터 성도



글 | 남양희 장로

들로 주의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같은 복을 충만히 넘치게 내려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새문안교회에 항상 마음을 두시고 주의 눈이 주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전건축의 문제뿐 아니라 영장리 추모관 문제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진입로 공사가 불교계와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 금년 안에 공사가 꼭 착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문안동산 묘지 문제도 고양시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능력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책임지시고 기도하시는 담임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온 당회원들이 순종하며 협력하게 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교계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해 내려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칩니다. 이런 큰 기쁨과 소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문안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차 새성전 기획행정 간담회



새성전건축

3월 4일(주일) 오후 3시 10분부터 언더우드교육관 B314호에서 교육1부 교역자, 부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2차 새성전 기획행정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배 집사의 사회로 장석현 목사의 기도와 김용담 장로의 인사말과 윤호기 집사의 새성전 및 감리교신학대학 소개가 있었다. 김용담 장로는 인사말에서 교회학교의 교육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먼저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하며, 새성전 건축 3여년 동안 교회학교의 어려움이 가장 클 거라 보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 1부와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으며 내년 4월 감리교신학대학교로 갈 때 사용 안내에 대한 의견수렴과

새성전 건축의 세부 설계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듣기 위함이니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계속 좋은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장석현 목사가 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참석자를 소개한 후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각 부서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설명했고 이에 따른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 의견들을 종합해 추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새성전 건축기간 동안 아기학교부터 유치부까지는 지금 사용 장소가 헐려서 불가피하게 교육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각 부서별 현 인원과 예비장소

부서	학생 제적	출석인원			현 예비장소	예배시간
		학생	교사	총인원		
탁아부	40	22	24	46	새문안어린이집	오전 9:30
탁아2부	35	19	13	32		오후 1:30
유아부	53	44	30	74	신관2층 유아부실	오전 11:30
유아2부	33	27	20	47		오후 1:30
유치부	88	77	31	108	신관2층 유치부실	오전 11:30
유치2부	43	30	17	47		오후 1:30
초등123 I부	129	107	32	139	언더우드교육관 4층 비전홀	오전 11:30
초등123 II부	55	53	20	73		오후 1:20
초등456 I부	126	101	31	132	언더우드교육관 3층 언더우드홀	오전 11:30
초등456 II부	51	44	25	69		오후 1:20
중등부	190	151	36	187	언더우드교육관 4층 비전홀	오전 9:50
고등부	186	150	38	188		오전 8:50
합 계	1,029명	825명	317명	1,142명		



탁아부: 탁아부실은 예배드리는 부모와 가깝게 있어야 하므로 주일예배와 같은 장소이어야 한다.

유아부: 전제 조건이 주중과 주일에 교사실이 필요하고, 1,2부 통합 때는 언더우드교육관에 함께 사용할 장소가 협소하여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감리교신학대학 보다는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

유치부: 유아부와 같이 교사실과 방이 있어야 하고 교사들이 5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조정이 필요하고, 유아, 유치부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한다.

초등부: 현재 언더우드교육관이 학생들에게 익숙해 있어 부모들이 편안하고 가급적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며 학부모도 가까운 장소에서 중계를 통한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 감리교신학대학교로 갈 경우는 학생들이 활동량이 많아 위험하고 낯선 곳에 갔을 때의 보호문제가 있으며 매주 기자재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 예배 후 분반공부 때 10~12개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분리된 분반 공부장소가 마련 되어야 한다.

중, 고등부: 현재의 제도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별 논의가 없었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다.

지금은 교회학교 시작과 주일예배 시작시간이 같으므로 교회학교 예배 시작시간에 편차를 두어 부모들의 이동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성전 건축기간 동안 만이라도 교회학교를 1,2부 통합하여 예배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몇 해 전에 통합 운영 때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어 통합문제는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주일에 교육관과 신학대학교를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버스 같은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용담 장로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의견을 제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과 기도로 4시30분에 간담회를 마쳤다. **새 글 | 김재우** 집사

교육1부 교역자 회의

간담회에 이어 교육1부 교역자들이 모임을 갖고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공사 중 예배장소는 언더우드교육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교회학교가 분산되었을 경우 안전 문제가 염려된다. 가령 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가 서로 다른 곳에 배치되었을 경우, 다 자녀(多子女)를 둔 부모가 아이들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가 자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심적으로 불안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부모의 예배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 예상된다.
- 2) 현재도 다자녀 부모의 경우 본당과 교육관에 자녀들을 보내고 예배드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공사 중 자녀와 부모의 예배장소가 더 멀어질 경우, 즉 부모는 감리교신학대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지금보다도 더 큰 불편함이 예상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감리교신학대가 아닌 언더우드교육관이나 근처에서 영상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교육관이 아닌 다른 추천장소로는 금호아트홀, 덕수초등학교 강당 등이 좋을 것 같다.

예배드리는 학생수 (탁아부~초등부)

1부		2부	
재적	출석	재적	출석
436명	351명	217명	173명

- 3) 예배장소로는 탁아부는 언더우드교육관 1층을 개조한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유아부는 언더우드교육관 220호(현 어린이빛도서관)를 219호와 통합 후 온돌구조로 바꾸어 사용하고 교사실은 218호를 사용하며, 유치부는 언더우드교육관 B1층(현 미션홀)을 온돌구조로 바꾸어 사용하고 교사실은 B110호실을 사용함을 희망한다. **새 글 | 최요한** 전도사

제 3차 새성전 기획행정 간담회



3월 18일(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언더우드교육관 B317호에서 교육2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송용원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김용담 장로의 이 모임의 필요성과 각 부서가 긴밀하고 충분한 의견들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라는 인사말과 이덕실 장로는 교회내의 70개 부서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경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인들의 질문에 ‘건축은 2013년 4월에 시작하여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에서 새성전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가 새문안, 명성, 사랑의교회인데 명성과 사랑의교회는 기존 교회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건축을 하여 어려움이 없는데, 새문안의 경우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해야 함으로 주일에 약 6,000명이 이동해야 하는 지혜로운 운용이 필요하고, 새성전은 8,900평의 면적에 2,7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기 집사의 신학대학 영상소개가 있는 후에 참석한 분들의 소개가 있었다.

교육2부에서는 회의 전에 교역자들이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대책을 검토한 것을 송용원 목사가 발표를 했다. 답사 결과 내용은 현재 5부 예배는 꾸준히 예배 참석인원이 늘고 있어 교육관에서 분산해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드리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예배 후 GBS 등 집회 모임도 적당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5부 예배 특성상 한곳에서 집회를 해야 집약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집회가 보통 7시에 끝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저녁예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기림 찬양대: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공동으로 악보를 사용해야하는데 타 찬양대와 예배가 나뉘질 때 악보사용의 어려움이 있고, 오르간 사용을 못할 경우 찬양 수준도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찬양연습이 1시30분에서 3시인데 연습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대학부: 감리교신학대학과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비교는, 감신대에 갈 경우 새 친구를 전도했을 때 새문안교회라는 인식이 안 돼서 양육팀의 리더를 세우기 힘들어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비품 등의 보관 문제도 어렵다.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육1부가 언더우드교육관 사용을 하기에 교육1부에서 봉사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하지만, 어른 예배와 떨어져 소통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청년1부: 대학부와 유사한 의견들이 많고 청년 대학부들과 성전건축과 관련한 간단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했으면 바라고, 감리교신학대학은 소규모 모임에 장소가 미흡하고 물품관리문제가 있어 부서별 보관공간이 필요하다.

청년2부: 교회건축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지양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상의가 있기를 바란다. 김용담 장로는 이에 대해 무엇을 얘기할 건지 먼저 논의가 되어 각 부서별 요구사항을 정리, 문서로 작성하여 각 교역자들이 교회 건축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기를 제안했다.

각 부서는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여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해 말 안에 사용 안내서를 만들어 잘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김용담 장로의 말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새** 글 | 김재우 집사

교육 2부 교역자 간담회

교회 건축 시 교육2부에 해당되는 장소사용의 문제는 5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지에 관한 것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아니면 언더우드 교육관이라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신대에서 예배드릴 때의 장점으로 무엇보다 청년들이 장년들과 같은 예배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5부 예배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넓은 예배 공간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본 교회건물이 아니기에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각 부서 및 사역팀별로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언더우드교육관에서 예배드릴 때의 장점은 원래 사용하던 익숙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1부가 언더우드교육관에 남게 되면, 교육1부 봉사자로 섬기는 청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장년들과 예배 및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교회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5부 예배 인원을 감당할 공간이 부족한 것과, 5부 예배 이후 드리는 교육2부 각 부서별 집회시간이 주일저녁 예배시간과 겹치게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나뉘어 영상으로 중계하는 예배는 예배 집중에 방해가 되며, 예배 시 오르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건축 중 교육2부 장소사용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활동 시간과 영역에 따라 조금씩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건축이 시작되면 모두가 조금씩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교육2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감신대를 사용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새**

글 | 강승윤 전도사



▲ 1967. 언더우드기념관 기공예배에 참석한 여전도회원들

언더우드기념관 (교육관)

교인들의 증가와 함께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도 증가하여, 본당 건물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1964년 건축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첫 위원장에 허봉락 장로를 선임하고 건물의 위치는 교인들의 여론으로 예배당 동편으로 결정하였다.

대지는 교회가 당주동 대지 65평을 345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건축비는 원일한 장로가

서대문 독립문 옆에 있었던 절제관(교북동111번지 소재 건물 90평과 부속대지)을 매각하여 540만 원을 헌금하였다. 이후 김대보 장로가 건축위원장을 맡고 서재현 장로와 정주영 집사가 건축위원으로 보강되어 건축헌금을 모으니 1,051만 원이 모아졌다.

기념관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481평으로 1967년 봄에 착공하여 7월24일 정초예배를 드리고, 1967년 9월27일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예배와 개관예배를 겸하여 드렸다.



▲ 01. 언더우드기념관 02. 1967.언더우드기념관 기공예배를 마치고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
03, 04. 기공예배에서 설교하시는 강신명 목사
05. 기도하는 서병호 장로 06. 기공예배에 참석한 여전도회원들

공사 중에 있었던 비화(秘話)를 이야기하면, 공사 중에 설계자의 구조계산 착오가 있어 보(Beam)에 하자가 생겨 기둥과 보를 보강하여 시공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각 층마다 기둥 상부에 아치모양의 보강 상태를 볼 수 있다. 그 당시 한국의 건축시공이 모두 수작업으로 하던 때여서 콘크리트 타설도 철판 위에 모래, 자갈, 시멘트를 등짐으로 운반하여 놓고, 물을 부으며 손 비빔으로 비벼서 일일이 삽으로 떠서 넣으면 철근이나 참대나무 봉으로 다져서 타

설하였다.

45년 전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시공한 기념관이 지금까지도 아무 하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명판에는 '이 언더우드 홀'은 한국선교사이자 교육가이고 이 교회 설립자이자 교인이며 한국인의 벗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언더우드 일가를 기념하기 위해 봉헌되었다 '고 새겨졌다. 4

글 | 김홍배 집사 자료제공 | 임급주 공로장로

*총회 사회봉사부는 4년째 3월 첫 주일을 사회봉사부의 날로 지키고 있다. 새문안교회는 지난 3월 4일 저녁 자원봉사부와 사회복지재단이 함께 헌신예배를 드렸다.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렬 목사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사회선교 지침

저절로 되지 않는 소금과 빛의 역할

사회복지,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다.

예장 96회 총회 기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자는 주제를 정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원손이 한 것을 자랑하면 하늘의 상이 적어지는 줄 알아서 그 동안 은밀성을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 가슴 아프다. 이제는 증거 하는 것이 더 선교적이라고 여겨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더 무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독교가 시설 운영을 70% 이상하고 있는데 세상이 잘 모르고 있다. 종교계 11개 종단이 사회복지 이사회를 구성하여, IMF 때 사회 비판도 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내고 선도하고 또 주도하고 있음에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아래 능력위주의 사회로 가면서 능력 없으면 소외 되고, 평균수명이 80세가 넘고 평생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자립 못하는 계층이 많고 그 층이 점점 넓어지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벤트성의 구호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모습과는 멀다.

반성과 회개가 있는 믿음이 우선

실제로 사회복지 구현은 민주화의 목적이었는데 민주화는 이룩했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이런 사

회의 목적과 동기와는 다른 순수한 섬김의 정신자세로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 관련된 사람만이 봉사하는 것이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선교 지침서는 1984년부터 총회가 인정하는 선교정책을 실은 것이다. 우리 교단이 보수적이면서도 전통을 이어 건강한 사회책임을 다하는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 사회선교정책을 실은 사회선교지침서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구호와 자선을 넘어 불의한 구조를 평화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는 곳이 회복, 보존되도록 하는 환경운동,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섬김의 선교, 인권문제, 사회정의, 대북구호, 재해구호대책 등에 대해 교회 입장을 만드는 일이 들어 있다. 전문성과 조직, 체계, 봉사정신, 신학의 훈련 없이는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먼저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 회개 없이 믿음만 이야기하는 생활의 반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나가자. 사회봉사, 복지도 영생을 위한 길이다. **새**

정리 | 이승리 권사

꿈꾸는 구역

교회의 세포조직과 같은 11개 교구의 구역장, 부구역장이 매일 2회 모인다. 올해는 심방부가 주관하여 둘째주 금요일에는 외부 강사 특강을, 넷째주 금요일에는 교구담당 부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훈련하는 기획을 하였다.

둘째주 특강 외부강사

- 3월 9일- 꿈꾸는 구역/김경수 목사
(약수교회:통합)
- 4월 13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생생(生生)리더쉽/이상억 교수(장신대 상담학)
- 5월 11일-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유해룡 교수(장신대 영성신학)
- 6월 8일- 헌신의 모델/조동천 목사
(신촌교회 :통합)

넷째주 내부강사

- 2월 24일- 누가, 행전에 나타난 교회 내에서의 의사결정의 원리/이두희 목사
- 3월 23일- 구역 소그룹 리더쉽/이영화 목사
- 4월 27일- 섬김의 리더쉽/정영식 목사
- 5월 25일- 신앙의 대잇기/장석현 목사
- 6월 22일- 심방의 원리와 실제/김명자 목사
- 9월 28일- 예배의 원리와 실제/현재규 목사
- 10월 26일- 상담자로서의 권찰/양해란 목사
- 11월 23일- 제직의 사명과 자세/신정우 목사

지난 3월 9일에는 ‘꿈꾸는 구역’이란 제목으로 구역예배의 필요성, 구역예배의 바람직한 상, 구역장의 리더쉽에 대해 약수교회 김경수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다.

구역은 소그룹에서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화시키기 위해 구역의 역할이 필요

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구역이 모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역장이 먼저 진솔하게 힘든 얘기를 꺼낼 때 구역 식구들도 서로 가면을 벗고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서 구역원들 사이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구역모임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고민들을 함으로써 말씀의 성육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구역예배 때 새 신자를 위한 빈 방석을 마련하고 기도하며, 구역예배 날을 온전히 연보 하는 마음으로 하고 구역예배가 끝나면 구역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구역장은 꿈꾸는 리더쉽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예민하여 구역원들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에게 행함의 과제만 있는 것 같다. 친밀한 교제도, 구역식구들과 함께 전도시간 내는 것 모두 쉽지 않지만, 도전적으로 실천해 봄이 어떨까? 새 신자를 친절히 반기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며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새**



글 | 최경숙 집사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지난 3월 3일(토), 전도부(부장 백승현 장로) 주관 5주간의 바울전도학교의 교육과정 마지막 현장 전도를 나가기에 앞서 강동협 목사님의 선창에 따라 훈련자와 훈련생들은 큰 소리로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를 복창하고 현장으로 나갔다. 모든 훈련생들은 18조로 나뉘어 광화문 주변에 흩어져 그 동안 배우고 실습한 대로 전도하였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전도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5주간의 전도 훈련 교육이 영혼구원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간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5주간의 훈련 중 3주째부터 현장 전도를 나갔는데, 다음은 훈련생들의 소감을 간추린 것이다.

- 훈련생1: 훈련자와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 잘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 또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 훈련생2: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는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았다.
- 훈련생3: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 그 동안 내가 너무 단일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죄송스러웠다.
- 훈련생4: 그 동안 전도지로만 노방전도를 해왔는데 입술을 열어 직접 복음을 전해보니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 훈련생5: 오랜 교직생활에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앞으로 남은 교직생활 전도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 훈련생6: 훈련자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복음 전하는 모습에 타 교회 교인이 은혜 받았다. 나도 더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해야겠다.

이 외에도 많은 훈련생들이 성령의 역사에 은혜 받고 회개하며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바울전도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소개 되었다. 노방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전도대상자와의 접촉점인데, 어머니!(여성



글 | 전해웅 집사(바울전도학교 팀장)

상대)와 아하 그래요!(남성 상대)의 현장 접근법이 처음 만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선한 행실로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얻어 복음에서 결신까지의 과정을 들으며, 선한 행실이 복음 제시의 중요한 접촉점을 갖게 한다는 사실도 체험 할 수 있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 병원 등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전도의 필요성과 그 밖에 영천시장골목, 광화문광장과 지하철역 주변, 인근 오피스빌딩 및 지하상가 등에서 상황에 맞는 복음제시 사례를 나누었다. 특별히 한 팀에서는 품격 있는 커피숍 전도법을 소개해 매우 효과적이고 결실 가능성이 높음을 실제 경험으로 들려주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한 제1기 바울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할 때는 교우들의 관심이 낮아 많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기우였다. 많은 분들이 전도훈련에 관심 있고 또 훈련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개강 첫날 강의실을 가득 메운 훈련생들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총 55명의 훈련생과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있는 18명의 훈련자가 참여했으며, 훈련5주 동안 113명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36명이 주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또 전도폭발 훈련의 관계 전도와 더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환경을 전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접근하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는 것이 단기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또한 훈련생들이, 훈련자들의 본을 받아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하게 하는 기쁨을 누린 것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품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수확이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와 열정과 말씀으로 무장 시켜주었기에 가능했으며, 3년 동안 새생명운동을 통하여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잘 훈련된 분들이 있었기에 제1기 바울전도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심의경 권사님과 손정은 권사님은 함께 팀장으로 수고하시면서 끝까지 교육과 현장전도에 동참하여 보여준 헌신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또한 큰 도전을 주었다.

금년부터 전도부에서는 일일전도학교의 초급과정과 4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고급과정인 전도폭발훈련 14주과정의 중간단계로 5주 바울전도학교를 개설하였다. 일일전도학교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초급과정이라면, 바울전도학교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급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바울학교의 특징은 이두희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과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과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영적 재무장을 시켜 주신 것과 또 말씀 암기의 달인이신 강동협 목사님으로부터 핵심적인 복음내용을 빠른 시간 내

암기할 수 있도록 지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의 삶을 사시는 정인상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 모두를 새문안교회의 전도 왕을 꿈꾸게 하였다.

우리 교회에 새 생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전도훈련을 하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전도는 선택이 아닌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수임을 새롭게 인식하며 새 성전을 완공하고 새 생명들을 성전에 가득 채워 드리는 입당 예배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상상해본다. 때마침 창단된 기드온 전대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도 현장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더욱 준비된 전도자로서 쓰임 받도록 5월에 일일전도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어서 2기 바울전도학교와 하반기에 8기 전도폭발훈련의 개강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교인들이 단계별 전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적 없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서 훈련시켜 주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전3:13~15) 새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울전도학교의 문을 열었다. 기념관 4층까지 오르느라 숨이 찼지만, 안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에 순간 멈칫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 달리 비교할 길이 없지만, 기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다. ‘와, 대단하구나.’ 첫날부터 성경구절은 물론 상황 별 전도 표현들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신앙으로 보나 경륜으로나 대선배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임하는지... 절로 긴장이 되었다. 각 조 별로 짝을 맞춰 외운 구절들을 전체가 함께 선포함으로써 첫 시간을 마감했다.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뻗으며 외친다. ‘이건 전투의 자세? 그렇지. 전도는 영적전투지.....!’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사실, ‘전도학교’ 라는 말이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는 회개의 고백이 늘어날 때마다, 결론은 언제나 이 구원의 행복을 전하는 것 밖에는 값을 길이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용기를 냈다.

죄인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

5주간 열린 바울전도학교는 이두희 목사님의 복음 핵심 강의와 강동협 목사님의 복음제시법 강의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솟구치도록 돕는 강의는 물론, 암송과 모의전도 연습에 기쁨을 토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만으로도 결연해지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 모든 분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길

3주차부터 노방전도 실습이 있었다. 내가 속한 조는 총로 3가 지하철역으로 갔다. 복음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지만 정작 전도하려 나온 내 모습은 어딘지 어색했다. 그런 나와는 판이하게 훈련자 권사님은 너무나 정중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복음을 경청하더니 권사님의 권유에 따라 영접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소음 속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의 입술을 달싹거리며 한 마디씩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순간, 내 속에서 부끄러움이 뜨겁게 올라왔다. ‘토요일, 이 분주한 서울 한복판에서도 하늘 문을 열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한 생명을 찾으시는구나!’



글 | 문영향 집사

구원받는 참 믿음

드디어 5주차, 마지막 수업이었다. 그날 노방전도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라는 훈련자 권사님의 권유도 있었기에 마음이 떨렸다. ‘주님, 제게도 한 사람 맡겨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길을 나섰다. 분주한 발걸음으로 복잡잡한 지하철역을 열심히 둘러보았다. ‘누구일까? 누구일까?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내린다. 두 손 가득 든 물건 중 하나를 떨어뜨린다. 계단 위까지 올라다 주며 말문을 연다. 그리고서는 일사천리였다. 마지막으로 “아멘” 하며 영접기도를 마치는 순간, 천국의 팡파르와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인데 이 정도로도 약하지 않을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1:18)” 위에 붙인 소제목은 바울전도학교에서 훈련한 전도의 기본 주제이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미련해 보이는 방법에 겸손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또한 나와 같이 미약한 자라도 전하고자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여 주신다는 것. 그렇게까지 나를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릴 뿐이다. ✎

기적의 기도와 전도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도 대상자를 만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한다.

나 자신도 기도 응답해 주심에 놀라며 너무 기뻐서 체험한 일들을 간증하고 다닌다. 한 예로 30년 동안 고모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번 전도폭발 훈련중에 고모님 영혼을 꼭 구원시키겠다는 생각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다. 오랜 세월 받아들이지 않던 복음을 결국 눈물을 펄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셔서 지금은 동네 교회에 나가고 계신다.

이모님 내외도 30년 넘게 기도하며 만나거나 전화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간곡히 전하였지만 알겠다고 할 뿐이었다. 2011년 2월쯤 이모부가 교통사고로 대전 건양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식불명에다 패혈증과 고열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급히 내려가서 보는 순간 너무나 놀랐다. 온 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피부는 새까맣고 갖가지 기구가 꽂힌데다 팔다리는 침대에 묶여 거의 시신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며 엉엉 울면서 온 힘을 다해 통성 기도를 간절히 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모부 영혼을 지금 데려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 주님을 믿지 못했는데 제발 살려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무의식 중인데도 이모부가 숨을 크게 몰아쉬는 느낌이 있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올라와서 주위 분들과 전도폭발 교육 받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중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모한테 전화가 왔다. 의식이 깨어나고 몸도 좋아져 병원에 전도사님이 매일 오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살았다고 볼 수 없던 이모부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언니와 함께 가보니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자매를 보고 웃고 계셨다. 나는 얼른 복음 제시를 했고 이모부는 다 듣고 웃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셨고 병원 예배실에 가서 꼭 예배드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

기적은 계속되었다. 전도폭발 5기 교육 받을 때

작 선생님과 노방전도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3개월 정도 동네 여러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제시하니 결신하고 즉석 양육까지 받았는데 좀더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기에 이튿날 통화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집에 와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며 주일날 만나자는 것이다. 마침 그 주일은 새생명 초청 잔치날이라 2교구로 가서 등록카드를 기록하고 예배드리고 매 주일 새교우실에서 교육 받고 7여전도회에 속하여 잘 지내고 있는데 그가 전폭훈련 1단계 교육도 받고 그의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도 복음을 제시해 우리 교회로 인도하였다. 전폭 현장 실습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기적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치 못하신 성도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꼭 동참하시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너시! 살림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ㄴ



글 | 임남순 집사

쓰나미가 남기고 간 울음소리

- 일본 총회장 담임목사 초청 대지진 1주년 행사

금년 3월 11일은 일본의 대지진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대지진 1주년을 맞는 기념행사에 일본기독교교단 총회장이 이수영 담임목사 부부를 공식 초청한 것은 지난 10년간의 한 일 기독교 교류의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담임목사님을 수행하여 일본을 다녀온 낙운해 장신대 교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내내 총회장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작년 3월 11일 오후 2시

당
끝
까
지



▲ 일본어로 '재앙을 멎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설교제목이 쓰인 안내문 앞에서, 좌로부터 일본기독교교단 총회장 부부, 동북교구장, 이수영 목사 부부, 낙운해 목사

46분에 일어난 대지진 1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 일본 기독교 교단이 교단 차원의 큰 행사를 준비해왔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그 대신 3월 11에 센다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피해지역을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전 과정을 이시바시 히데오 총회장 내외와 이수영 목사님 내외가 같이 다니신 겁니다.”

한일 기독교 교류 10년의 결실

새문안이 그 동안 일본기독교교단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10여 년 밖에 안 된다. 10여년 전 동북아 화해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3년간 진행된 언더우드학술강좌를 시작으로 청년대학생들의 교류가 지금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 장신대 유학생 낙운해 목사를 우리 교회의 협력 목사로 초청하여 지원했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장신대 교수로 임용되는 일도 있었다. 5년 전부터 일본어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수십 명의 일본인 목사들이 우리 강단에 섰다. 지난 번에는 일본교단 총회장이 새문안 본당에서 3.1절 기념설교를 하는 귀한 시간도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어 이번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방문기간 동안 일본 교단에서 보여준 정중한 예우와 배려가 너무나 파격적이고 기대이상이었다는 담임목사님은 이번에 특별 초청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난 10년간의 활발한 교류 때문에 일본 교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일본 교단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교세확장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전통인데 우리 교회와 교류한 이후 교단 차원에서 전도단을 만들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초청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대지진 때 우리가 보여준 지원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후원금을 보냈지만 우리가 전체 후원 액의 10분의 1정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일본 교단은 새문안교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지진 1주년 당일 일본 교단 동북교구장이 시무하고 있는 센다이 로크반초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있었다. 사실 일본교단 측

은 피해지역에 오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인데 새문안교회가 기꺼이 응해 주어서 너무 고맙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설교까지 부탁한 것이다.

“설교를 하고 나니 일본인들이 감격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월간지에 실을지, 아니면 대지진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설교들을 뽑아서 단행본 책으로 낼지 생각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씀을 우리만 듣고 끝낼 순 없다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

그 다음으로 피해지역인 이시노마키시에 갔다. 낙운해 목사는 지난 5월에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가보니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작년의 처참했던 상황을 회고했다.

“작년 5월에 갔을 때 평생 말아본 적도 없는 냄새가 너무 심해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는 물론이고 각종 동물의 시체, 그리고 식물, 가스,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내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도 끊어지고 전기도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였는데 이번에 가보니 신호등도 작동이 되었고 많이 쌓여 있었던 쓰레기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지역만 그런 것이지 모든 쓰레기와 잔해들은 사실 번두리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금년 2월 현재까지 확인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는 19,131명이고 실종 행방 불명자가 3263명이다. 낙운해 목사는 10일 오후 센다이 와카바야시치구라는데 가서 해안쪽으로 갔는데 검정색의 옷을 입고 꽃다발을 갖고 온 사람들(유가족)이 많이 와 있었고 각자가 꽃다발을 놓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본 기독교단이 운영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봉사터 방문이었다. 센다이에 있는 이곳에 전국에서 청년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해 모여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복구 봉사 작업을 1년 내 해왔다.

“참으로 전도가 어려운 동북지방인데 지역 주

민들이 그 동안의 활동을 보고 감동을 했고 자기들이 새로운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돈을 모아 엠마오 사시야스키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여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진 거죠. 거기에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시간에 맞추어 총회장께서 3월 11일 오후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참석하는 자리라 예배할 수 없는데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일본 기독교단에 가장 높은 총회장이 오셨고, 한국의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와 주셨다고 하니 다들 놀라워했다. 그 자리는 비록 소수만이 참석했지만 사실 일본 전국의 교회가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었고 이 자리를 위해 전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

칼바람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받아

쓰나미가 왔던 지역의 바닷가에서 총회장과

이수영 목사와 여섯 명이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고 해안에서 그날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슬프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길 기도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고 추웠다. 낙은해 목사는 작년 그 당시에는 눈까지 오고 바람이 불어 뺏속까지 얼었다고 느낄 정도로 추웠다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당시 한 초등학교가 쓰나미로 4층까지 잠겼는데, 옥상에 올라간 아이들은 살았답니다. 5층이 옥상이었는데 공포 속에서 서 있는 아이들이 이를 동안 구조를 못 받았고 거기서 자기 집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물 속에서 쓸러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심지어는 부모와 동생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를 동안 지냈다 해요.”라고 말했다. 일본 기독교단은 다른 날짜에 다 모여 행사를 했는데 총회장이 대표해 피해지역에서 조그만 기도모임을 했지만 일본 교단 전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이



▲ 자동차와 비행기들이 산나미에 밀려 완전히 마비되었던 공항



▲ 바닷가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



▲ 시가지 지역은 청소를 해서 깨끗하지만 남아있는 앙상한 기초가 을씨년스럽다.

수영 목사님이 방문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다.

새문안 청년들도 쓰나미 지역에서 봉사와 전도의 손길을

이수영 목사님은 현장을 가 보니 할 일이 많고 1년이 지났지만 센다이 지역이 제일 피해가 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담하다면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봉사하는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해안 지역 500km에 걸쳐서 쓰나미가 왔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배가 집 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항이 다 폐쇄되고 도로가 없어져서 구호물자는 전 세계에서 왔는데 실어 나를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며 1년 만에 길은 났습니다. 길가에 잔해들이 쌓여 있고 한동안 냄새가 지독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깨끗해 보이는데 왜 청년 손길이 필요하는지 물어보니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논이나 밭 안에는 유리나 잔해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하려면 시간과 수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수영 목사님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다면서 돌아오자마자 송용원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했고, 청년 대학생들도 자체 내에서 회의를 했는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소한 두 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씩 봉사를 하고, 숙소를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지만 50명에서 최대한 100명 정도 규모로 봉사단을 조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뉴스를 보니 일본 대지진 1주년을 맞아 빠리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다 모여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특별 성명을 통해 위로도 했습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우리 나라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교회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대담 정리: 편집장 | 유재현 장로

재앙을 멎게 하실 하나님

(욘 3:1-10)

이수영 담임목사

꼭 1년 전 오늘 발생한 3.11 사태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데 대해 일본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루 속히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재건의 의욕과 재기의 희망이 재난을 당한 일본국민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3.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에서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진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3.11 사태는 불신의 나라 일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니 일본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불행을 당한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일단은 무조건 힘닿는 대로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떤 여신자 한 사람은 예배 후 제 방에 들어와서 일본이 재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하느냐 하며 교회에서 일본에 보낼 구호현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현금봉투를 제 앞에 내팽개치며 “목사님이

나 현금 많이 하시라”고 소리치며 나간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주일에 저는 3.11 사태를 생각하며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난을 당한 일본을 돕자고 호소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일 설교를 위해 제가 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인 요나에게(왕하14:23-25)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욘1:2)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일어나 반대편인 북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탔습니다(욘1:3).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나 하면 고래 또는 큰 물고기부터 머리에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에서 이 물고기에 관한 언급은 1장 17절과 2장 1절과 10절 단 세 절 밖에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입니다. 물고기에게 삼키었다가 삼일 만에 살아온 요



▲ 센다이지역 로크반초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본문 1-2절). 한번 혼이 난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본문 3절). 그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칩니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본문 4절)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었습니다(본문 5절). 니느웨에서는 왕과 그의 모든 대신과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본문 10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베푸신 이 용서 앞에서 요나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 니느웨가 이렇게 악독한데도 재앙도 내리지 않으시니 정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그러실 거면서 왜 안 오겠다는 저를 오게 하신 겁니까? 이젠 할 일도 없어졌으니 차라리 죽여주시죠. 이런 꼴 보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답하시기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욘4:4) 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욘4:10-11)

앗수르 제국의 큰 성읍 니느웨는 세계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요나서 1:2) 하신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니느웨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국적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애국적 동기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애국심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았습니

다. 신앙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11 사태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요나에게 니느웨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니느웨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싫어서 도망치려 했던 요나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가질 한국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게 일본 땅과 그 국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조건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일본인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아적 애국심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제한하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깨우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같이 되는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일본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성내며 몽니부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일본이니 이번에 혼 좀 나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안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재앙을 멎게 하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서의 재앙을 멎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모아 일본을 돕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했습니다. 새문안교회가 여러 가지 경우의 구제를 위하여 특별헌금을 해서 걷힌 역대 액수 중 가장 큰 액수의 헌금이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교인들이 제 설교에 공감하고 호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전액을 일본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에 비해 너무나 적은 돈인 줄 알지만 일본 교회에 작은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요나같이 행동할 뻔했던 우리를 깨우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많이 일으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탈북 동포들 어떻게 할 것인가?

* 굶주림과 폭압 정치를 피해 목숨 걸고 탈북해 우리 나라에 온 탈북자의 수가 현재 2만 3천명을 웃돈다.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없지만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를 떠도는 수는 어림잡아 수만 명이라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31명의 탈북자가 중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죽음의 길로 보내진 그 사건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처지를 목도하게 되었다. 본 지는 그들의 아픔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며 하루속히 이 비극이 하나님에 의해 종식 되기를 기도한다.(편집자 주)



함께 울어요!

지난달 4일 오후 7시, 낮부터 흩뿌리던 빗방울이 점점 가늘어지고 스산한 기운이 채가지지 않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삼삼오오 모여든 1000여 명의 관객이 2층까지 가득 채우고 어느 공연장과는 다른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며, 그러나 곧 열기로 가득찼다. 환호와 울먹임으로 시작한 콘서트는 출연자들의 애끓는 호소와 음악, 춤, 등으로 구성된 애잔한 인간 드라마였다. 목숨 걸고 탈북한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무심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 규모는 크다 할 수 없지만, 작지만 큰 울림을 가진 문화콘서트였다.

물밑 외교에서 수면 위 외교로 중국을 압박

다섯 살 어린아이와 여러 명의 노인들까지 포함된 31명의 탈북자는, 2월 초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람들로 상당수가 한국에 직계 가족까지 있으며, 이들의 북송 위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동안 탈북자들의 생사 문제가 여론화 된 적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등장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도 조용한 외교를 지양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2일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담의 대부분을 중국 내 탈북자 문제제기에 할애하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중국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어 청와대를 예방한 양제츠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국제적 관심과 비난이 고조되자 서둘러, 보란 듯이(?) 31명의 생명을 사지인 북한으로 강제 북송 하

였다.

3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탈북자 처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은 1951년 유엔 난민협정과 1967년 의정서에 나와 있음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중국도 비준한 국제



글 | 이철용 집사(YTN 영상부국장)

조약임을 강조하고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문제를 놓고 한중간의 외교적 마찰이 늘어 가던 중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차 방한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3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의 입장을 상호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안보현실을 불안케 하는 요소

중국은 왜 탈북자 문제에 이처럼 강경한 것인가. 아직 '인권'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그들의 정치 체제가 완전한 민주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원인일 수도 있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한국이나 서방 국가로 자유로이 선택할 의사를 존중해 주면 그들의 안보를 심각히 해친다고 보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택권을 인정해 주었으나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중국 입장에서라도 무한정 열어둘 경우 넘치는 탈북자들로 인해 동북 3성의 안보가 불안해지고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어 현상유지가 최선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1989년 동독을 탈출한 주민들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정부가 난민으로 보고 서독행을 인정한 것이 대탈출의 시작이 됐고 결국 두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동독이 붕괴된 현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마침내 탈북자 문제가 국제무대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3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2011년에만 20여 건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서세평 주제네바 북한대사와 그 일행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회의장을 급히 빠져나가다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급기야 우리측 의원들을 폭행하는 추태도 부렸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몇 년째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으로 계류 중이고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소위 진보인사들과 야당은 탈북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데 지난달 20일 미국 하원은 ‘탈북자 복송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세계보건, 인권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

하는 외교행위이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고 한다. 인권을 앞세워 체제를 전복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좌파들은 북한 주민보다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우선하기에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위험에 빠진 유대인을 구한 착한 사마리아인 처럼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은 굳이 불편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라 해도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안에만 극히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는 여타 사회적 문제보다 인기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

‘바른생활의 사나이’라는 차인표씨와 49명의 참가 연예인은 앞으로 중국과 관계된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탈북자들은 울 힘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라며 이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자고 외친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49명이 한명 한명 나와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울겠습니다”라고 서약할 때 객석의 탈북자들과 일반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 울음으로 화답했다.

이들의 착한 마음과 행동은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때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이민족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호해 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아닌가. 이제, 어떻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쉬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답변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15:21)

콘서트 제목 “함께 울어요(cry with us)”는 차인표 씨가 주연한 영화 탈북자의 이야기를 다룬 ‘크로싱’의 주제가이다. **세**

내 친구를 구해 줘요!

최근 우리는 언론을 통해 탈북동포 31명이 중국 공안에 잡혀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복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북한에서 탈출한 동포가 다시 복송되는 순간 그들은 “탈북자는 3죽을 멸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공개처형 되거나 수용소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북한선교부(부장 이기연 장로)에서는, 3월4일과 11일에 전교인을 상대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와 국제협약준수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교회마당에서 실시하였다.

3월 4일(주일) 이수영 담임목사께서 예배시 특별광고를 통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서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절절하

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호소문의 ‘지금 바로 탈북동포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라는’ 내용과 ‘성도들이 서명을 위해 교회 마당에서 서는 줄은 생명을 살리는 줄’이라는 설명에 교인들은 탈북동포 강제 복송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2주만에 총 4,752명이 서명하였다.



글 | 조병현 집사



한편, 3월 11일(주일) 우리 북한선교부에서는 성경공부를 마치고 자원하는 임원과 탈북성도들과 함께 중국대사관 앞에서 14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Save My Friend!”, “清救朋友”, “Save My Family”, “救我的家族”, “Save NK Refugees”라고 쓴 피켓을 준비했으며,

“우리는 탈북난민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중국 정부에 눈물로 호소한다!, We tearfully appeal to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tect the lives of North Korean refugees!, 我们向中国政府哭诉 保护脱北难民的生命!” 라고 쓴 현수막을 준비하여 집회에 참석하였다.

북한선교부는 또한 탈북성도(가명 김요람)의 기도문과 찬송가(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준비하고 참석하였는데, 집회의 마지막에 기도문 낭독은 참여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기도문 낭독 이후 부른 찬송가는 참여한 많은 분들이 찬양으로 인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집회를 인도하는 “탈북난민 구출 네트워크” 진행자는 마무리 멘트에서 “여러 종교 단체가 이 집회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개신교로서는 제일 먼저 새문안교회가 참석하여 은혜로운 마무리를 해주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당일 집회 현장에는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교회 김길자 권사를 비롯하여 탈북여성 박사 1호이며 현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이애란 원장도 탈북동포의 복송을 반대하는 금식을 수일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다. 탈북난민 31명이 복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중국과 제3국에는 탈북동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우리가 적극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들이 진정으로 선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끝으로,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새문안교회 성도님들께 이 글을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신 북한선교부 부원과 탈북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새**

당
끝
까
지

말씀 붙들고 구원을



남북한이 갈라진 지 반 백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분단의 원통함은 천추의 비극을 남기고 있습니다. 억압과 배고픔에 견딜 수가 없어 고향 산천 등지고 정처 없이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지난 2월 부모형제 찾아 북한 땅을 떠나 중국 땅에 머물고 있던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억류되었다가 지금은 강제 복송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존과 자유를 찾아 가족을 찾아 떠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새 삶을 찾고 혈육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까? 북한에 복송되면 반인륜적인 보복으로 가혹한 고문과 처형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안타깝게 기다리던 가족이 끝내 북한으로 강제 복송되었다는 비보를 들은 가족들



은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끌려간 탈북자 중에는 70대 노인과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UN난민 국제 의무인 난민협약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밀어 보낼 수가 있던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국이 태도를 바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강제 복송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중국에는 수만 명의 탈북자가 있으며 수십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장을 위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 탈북자들 희망대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송되어 끌려간 탈북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기로에 있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소중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땅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무고한 주민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뜻과 힘을 합쳐 탈북자들이 부모형제 자유롭게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 | 김요람 집사(가명, 탈북성도)(북한선교부)

칠흑 속에서 만난 빛

북한을 떠나 외국에서의 방황과 고통, 외로움과 눈물, 쫓기는 생활의 연속에서 희망을 찾아 꿈을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 많은 눈물들, 이젠 기억에서 사뭇 잊혀져 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경쟁은 시작되고...

살아남기 위해 들로, 산으로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1995년부터 발생한 대량 탈북사태가 벌어질 때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허덕이다 못해 산으로, 들로, 강으로 살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이 쌀 부족으로 배급이 끊기면서 국경 인근 주민들은 두만강을 넘어 식량을 구해 오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 하였는데, 도시나 농촌이나 형편은 다 마찬가지였다. 척박한 땅에서 가뭄과 장마까지 겹쳐 해마다 흉년이었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80년대 초부터 배급의 1~2%를 절약미,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떼고 주었으나 1995년부터는 식량을 자치단체별로 능력껏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며 직장마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되었다. 공장의 철제품, 동, 아연 등을 훔쳐 팔아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식량을 사고 산에서 나는 송이, 고사리, 약초 등을 팔아 밀가루로 바꾸어 끼니를 해결하였다.

우리는 함경북도 라진-선봉 시에서 살며 남편은 외화벌이사업소에서 근무 했는데 잘나가는 직장이었으나 계속 되는 식량위기로 우리 가정에도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다.

1996년 6월 식량위기로 견디기 힘들어진 남편은 “아무래도 중국 사촌집에 다녀와야겠고...” 라는 말과 함께 떠났다. 남편 없는 그 한

달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돌도 안 지난 둘째에게 젖을 먹이는데 (우유도 없지만) 엄마가 먹지 못하니 젖도 나오지 않고 4살 된 딸도 배고프다고 하나 어디 가서 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결혼 때 가져온 화장대, 옷, 살림도구를 팔려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았다. 들에 나가 쭈, 냉

이를 캐어 친정집에서 가져온 된장에 끓여 먹었지만 몸은 이미 병들어 갔다. 중국에 간 남편은 한 달 만에 중국 사촌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돈을 가져와 그 해를 무난히 넘기게 되었다. 북한 속담에 (한명이 벌어 열 명이 산다)는 말도 있지만 남편이 도강하여 얼마간 도움을 받으니 살만 했으며 그해 남편의 형제 모두 함께 살게 되었고 다음 해에도 또 도움 받으러 중국을 왕래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돈만 가져 오는 게 아니고 라디오,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 장사할 물건을 가져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남편은 나에게 친척이 계속 도와줄 수는 없으니 아예 중국으로 함께 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친척들이 도와주니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만약 남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 혼자서 과연 두 딸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내가 떠나면 친정 식구들은 나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등등...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했기에 남편을 따르기



글 | 이지연 집사
(2교구 4구역, 탈북동포)

로 결심하고 1998년 두 돌 되는 둘째 딸아이를 업고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다. 형제 중에서 제일 잘 나가던 우리 가족이 북한을 떠나자 시가 맥 모두가 흔들리면서 하나 둘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결국 한국 가는 길도 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중국에서의 3년 7개월은 너무도 힘겨운 생활이었다. 북한에서 해보지도 못한 일을 하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다. 특히면 보따리를 싸들고 이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다. 연변에서 친척의 보호 속에 살았지만 중국변방 군인들의 계속되는 수색과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또 피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 흑룡강성으로 이동하였다.

이곳 저곳을 헤매다가 무턱대고 찾은 곳이 십자가 달린 어느 작은 교회였다.

연변친척들이 그래도 잘 도와주는 게 교회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어 교회에 사정을 설명하니 그곳 사람들이 받아주어 짧지만 그나마 사람답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다.

칠룩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하나님

처음 찾은 교회에서 더 안전한 교회를 소개받아 간 곳은 어느 작은 교회였다. 도시 변두리에 있는 교회로 전도사님이 정류장에서 우리부부를 맞이하였고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져다주는 쌀과 채소로 끼니를 해결하였고 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목재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새벽마다 기도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부는 전도사님이 방에 가져다 놓은 책을 통해 차츰 하나님을 알아 가기 시작했다. 여름의 저녁 6시면 공장에서 퇴근하여 교회의 방에서 책을 보기 시작하였고 점점 재미를 붙였다.

그 책은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쓴 책으로 해방 후 조산원으로 일하면서 북한이 어수선 하자 남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천막교회를 시작하여 지금의 교회로

발전하고 해외안수목사로 미국으로 등 출타하였다는 등의 이야기와 여러 목사님들의 책도 함께 읽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남편을 타일러 함께 예배에 나가기도 하고 찬송가도 배우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배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같이 생활하던 먼저 탈북한 부부로부터 배우면서 너무 즐거웠다. 그러나 조금씩 배워나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 부부는 물론 다른 탈북자 모두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몇 달 안 되었지만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연변의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전도’라는 말도 잘 몰랐으나 우리는 시동생부부, 시누이, 시어머님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배운 대로 설명하였다. 길림성 도문시 양수천 탄광마을에 살고 있던 우리 가족은 주일이면 작은 교회를 찾게 되었고 또 교인들의 도움으로 셋집도 다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름이면 농사일과 과수원, 겨울이면 탄광, 부업 등 여러 가지 일을 닦치는 대로 하며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았다. 우리가족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탄광 마을에 시집온 북한 여성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 하였다. 늘 아침저녁으로 “북에 두고 온 큰 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굶지 않게 그의 고단한 삶을 지켜 주소서” 라고 기도하였으며 그 결과 3년 만에 북에 두고 온 큰 딸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도 큰 딸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돈도 많이 뿌렸지만 일이 되지않아 가슴치고 울며 살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 모든 일이 돈을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씩 풀려가게 되었다.

우리 네 식구는 3년 만에 다시 모여 애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큰딸은 유치원에서 글도 배우게 하고 우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다.



가자 희망의 나라로!

2000년 여름 흑룡강성 목룡시 교회에서 살던 때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전도사님과 상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 “정말 그런 일이 있냐”, “정말 탈북자들이 한국에 갈 수 있냐”, “가는 것을 당신들 정말 보았냐” 묻고 세상물정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시골에서 2년 동안 전기 없이 숨어 살던 우리 부부는 도시로 나와 교회를 만나고 한국행을 하는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우리도 살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잘 살아보기 위해,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고 OO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으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있었던 것 같다. 드디어 2001년 8월 우리 가족은 천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떠나면 탈출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한국까지의 입국 과정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육체적 고통 속에 숨이 막히는 긴 여정, 안내도 없이 나침반과 지도, 손전지, 휴대폰,

여섯 명의 일행 속에 어린 딸아이를 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막, 강을 건고 또 걸으며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시 되돌아가기를 밥먹듯 하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상세한 일정은 공개하기 어려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아무런 인연도 없는 생소한 땅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를 따뜻이 맞아 주었고, 진정한 조국의 의미를 깨우쳐 준 정부와 국민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

정부에서 배정해 준 주공아파트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해 큰딸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직업훈련도 받으며 적응할 준비를 착실히 다녀나갔다. 얼마 후 취업도 하고 직장동료들의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으며 늘 꿈 같은 날만 있을 줄 알았다.

나를 단련시키시는 주님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중국에 두고 온 딸과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도중 중국공항에서 딸이 잡혀 복송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내가

숨은 무너져 내렸다. 겨우 6살, 고향도 모르고 중국아이처럼 키워서 북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리디여리한 어린 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여도 누구도 들어줄 이가 없었다. 낮에는 직장생활, 밤에는 딸아이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디선가 울며 엄마를 찾을 딸아이 생각으로 그만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은 신경쇠약으로 아위어 갔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며 다짐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열심히 치료 받으며 마음을 다 잡고 회사에 복귀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이윽고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받았다. 아멘!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 우리 네 식구가 한자리에 다시 모이기까지 9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가족이, 한 피붙이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왜 이런 고통이 북쪽에만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감사하여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지만 좀 편하면 잊게 되는 가보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없고 하나님과도 멀어져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주변의 권유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기 위해 집과 회사 생활만 고집하였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줄 알고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자유시민대학에 입학하여 지금껏 내가 모르고 잘못살아온 것, 시장 경제의 원리(금융, 보험)와 상업적 거래, 미래의 꿈과 인간관계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힘들고 괴로우면 찾고 삶이 편안하면 잊는 하나님을 다시 마음 속에 모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다.

6개월 간의 학업 기간 중 자원봉사(장애인 센터)를 하면서 원장선생님이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도 장애인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자며 많이 배울 것을 당부하였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를 전공하여 정부와 국민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제는 주변과 직장에서 잘 모르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사회복지 제도에 관해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들이 삶의 제자리를 알고 찾아갈 때 칭찬과 격려도 해주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배운 지식을 우리 후배 탈북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주는 정착 멘토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7~8)

언제나 마를까, 눈물이

탈북 도중 붙잡혀 복송될 뻔 했던 딸을 찾고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살기까지의 9년의 세월과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으로 믿고 싶다. 통일은 한 개인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통일은 기어이 이뤄내야 할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숙제라고 본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루 빨리 저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더 이상 굶주림으로 탈북한 난민들이 죄인으로 처형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저 북한 땅 주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굶주림의 고통 속에 아픔과 눈물로 생사를 넘나드는 북한주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소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아버지는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저 북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새

텐트메이킹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

춘천의 한 대학교 부근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약간 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소박하게 모회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부근의 분식집에 중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는 청년 때부터 중국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교회의 예산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관찰하는 동안 중국인유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백여 명이 넘게 재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몇몇 학생을 만나 보니 다들 한국 유학생생활을 어려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교제를 시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어려움을 발견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서 굳이 전도를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인유학생들은 점차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자기들만의 다양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출석하는 성도가 적어서 늘 적적하던 교회가 젊은이들로 북적대는 것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여름 방학이 되니 모두들 집으로 돌아간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자주 배 앞이를 하며 고생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었던 학생이 부모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셨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오시는 김에 우리 모두의 부모님과도 만나달라고 부탁했습

니다.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공항에 내리니 그 학생의 부모님이 마중을 나와서 차로 안내하는데 최고급 벤츠승용차였습니다. 북경 중심가의 큰 호텔에 도착하여 음식점으로 들어가니 70여 명의 사람들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다가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환영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학생의 부모는 이 사람들은 모두 일가친척이며 그 동안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감사를 전하기 위해 모두들 이렇게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유난히 병약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이 무엇이든 도와주신다며 부모를 안심시켜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여러 친척들 앞에서 목사님께 감사를 표한 후 자신들을 위해 귀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1년 넘게 도와주는 분이 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믿을 수 있겠기에 목사님이시니 설교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정중히 요청해서 당황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사랑을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마치니 통역을 맡았던 그 학생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친척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

궁극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다가와 우리도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며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은 축복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모든 친척이 일어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신실한 기도 모임에 초청되었고, 지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성경묵상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한 달을 머물기로 하고 묵상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 후 학생이 방학이 되어 돌아갈 때마다 학생의 부모님이 보내 주는 비행기표로 방문할 수 있었고, 거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던 중국선교는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는 국내 최대 선교대회인 [선교한국]을 주관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니 사람들이 늘어서 성경공부 장소를 옮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자금을 구할 걱정을 하며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좋은 장소가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듣고 보니 현재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신축건물이었고, 공간도 두 배나 넓었습니다. 임대료를 알려주는데 목사님으로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일어나 임대하지 말고 살 수 있는 지를 묻고는 구입자금은 자신이 내겠노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의 면모를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즉시 감사하며 충성하는 중국인들의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난 후에는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 하심을 믿고 오직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일 매일의 선교임을 깨닫도록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모임을 통해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를 시작했고,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발하여 비즈니스선교사로 아프리카와 이슬람권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등의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는 주로 의료선교, 의료인선교사로 통용되고, 평신도선교사는 목회자선교사의 보조로만 인식되며, 자비량선교사는 자신이 벌어서 선교활동을 하니 교회와 성도의 후원이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부분적인 개념일 뿐 현대의 선교 상황 속에서는 부적절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인은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업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선교현장

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다방면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개념도 선교현지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포괄적인 전문성은 목회자선교사가 모두 갖출 수 없는 영역이기에 목회자 선교사의 사역보조의 역할인 수직적인 개념에서 협력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비량선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선교하므로 교회나 성도들의 후원이 전혀 필요 없는 선교사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대명령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와 전도를 기꺼이 해야 하는데, 직장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우리 대신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므로 당연히 후원해야 합니다. 자비량이라면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 수 있겠으나 선교 사역비까지 스스로 조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를 기웠다고는 했어도 그것으로 모든 사역비를 스스로 조달하여 사도행전을 채웠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사도도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선교했던 것입니다.

자비량,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야 말로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전문성과 선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과 함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현대 선교지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장벽에 둘러싸여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교사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없고, 아직도 격렬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이슬람권에는 오직 창의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 개념을

통합하고 현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개념으로서 텐트메이킹 선교, 또는 텐트메이킹 선교사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새**

정리 | 김두연 집사

■ 텐트메이킹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

1. 성경을 보면 텐트메이킹 선교가 보인다
2. 역사를 보면 텐트메이킹 선교가 보인다
3. 세계선교 상황을 보면 텐트메이킹 선교가 보인다
4. 한국교회를 보면 텐트메이킹 선교가 보인다
5.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process)이다. (삶이 곧 선교다.)
6. 가는 텐트메이킹 선교사로 참여하라
7. 영접하는 텐트메이킹 선교에 참여하라
8. 보내는 텐트메이킹 선교에 참여하라
9. 동원하는 일이 참여하라
10. 선교에 참여하는 창의적 방법 10가지
 - 1) 목적 있는 단기선교에 참여하라.
 - 2) 선교사를 초대하라.
 - 3) 개척사역을 하라(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하라).
 - 4) 한 종족을 기슴에 품어라.
 - 5)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
 - 6) 지구촌 축제를 열라.
 - 7) 텐트메이킹 선교에 참여하라.
 - 8)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만들라.
 - 9) 자신의 재정 사용의 최우선 순위에 선교를 두라.
 - 10) 좋은 선교훈련에 참가하라.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54회기 제3차 순회예배를 새문안교회에서 드리게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선교회 연합사업과 활동을 간략하게 보고 올린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남선교회 연합회 산하 6개 노회중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장자노회로서 제일 먼저 조직되었으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목적으로 서울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38개 교회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매월 각지교회를 돌아가며 순회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 순회예배에 참석한 회원은 32개 교회에서 182명 참석하여 제1부 순서로 이진원 목사의 “주5일 시대의 교회교육과 다음세대 부흥전략”이라는 제하의 특강과 제2부 월례회 및 회무처리, 제3부 만찬후에 제4부 순회예배로 인도 김철경 장로(새문안교회) 기도 김현원장로(송정교회) 설교 김호성 목사(금성교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배 중 드려진 헌금은 목회자 자녀와 외국인 신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제54회기 회장 최홍택 장로(연동교회) 수석부회장 이창주 장로(세광교회) 총무 조규남 장로(자양교회) 새문안교회에서는 협동총무 김철경 장로, 회록서기 강진환 집사, 회우부차장 이낙중 장로, 재정부차장 김현웅 집사, 국내선교부차장 김방현 집사가 봉사하며 활동하고 있다.

제53회기 회장으로 최정선 장로가 열정적으로 섬기며 봉사하여 해외선교 군선교(평화군인교회 진중세례), 북한선교 장학사업, 조찬성경공부(5

월중 6강 약수교회), 전국남선교회 전국대회 참석 수도권조찬기도회, 강북협의 회체육대회 추계 야외예배환경녹색선교단 창단 등 많은 일을 하셨으며 해외선교를 위하여 몽골 울란바타르 까지 다녀오셨다.

남선교회 70년사 기록에 보면 제1회기 회장 고응진 장로 제7,8회기 석선진 장로 제9,10회기 김동만 장로 제24회기 이병완 장로 제38회기 이용실 장로 제44회기 이경식 장로께서 역대회장으로 부회장,협동총무,각부서장으로 새문안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 남선교회는 1남부터 7남선교회로 조직되어 있으나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너무 적은 수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여 타교회의 선교활동을 돌아보고 배우며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새



글 | 강진환 안수집사(제2남선교회 회장)

땅 끝까지



남선교회로 모이자

창공을 날고 있는 항공기에서 무한 광대하게 펼쳐진 구름을 내다보는 것은 매우 신비롭기 그지없다. 몽골로 향해가는 우리 남선교회연합회 회원들은 그 감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며 창조하신 조물주를 향해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다.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가 매해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고 몽골선교를 입안하고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미루어 오던 중 6년 만인 2011년 7월4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모처럼 계획된 해외선교지 방문이라 우리 일행(9명)은 마음이 들뜨고 밤새 준비에 바빠 제대로 잠을 못 이루었는지 눈 주위에 피곤함이 엿보인다. 방학을 맞은 공항은 해외여행객과 각 교회마다 여름 해외선교지를 답사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어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 도착할라 치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인다.

기다림 속에 이제 차례가 되니 이제야 여객기를 타고 갈 수 있다보다며 우리 일행들의 여권을 카운터에 내미니 이게 웬일인가 바로 앞 손님으로 이미 좌석이 만석되어 오늘 몽골 출항은 힘들고 내일도 확답할 수 없으니 공항으로 일찍 나와 달라며 양해를 구한다. 이미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여객기 출발 컨펌까지 받은 우리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몽골항 공사를 원망해도 추가로 출발할 비행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 차이나 항공을 이용하여 베이징 공항에서 우회하기로 하고 6시간 동안 공항내에서 머물며 지루함을 달래며 타고 갈 여객기를 기다린다. 긴 여정으로 힘들게 몽골 땅에 도착하니 인천공항을 떠난 지 18시간이나 되었다. 3시간여의 짧은 거리가 이토록 여행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몽골이 아직 교통 여건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리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연합회는 1920

년경에 청년면려회로 출발하여 교회의 평신도운동이 태동하게 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반일운동 참여가 확산되어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는 아픔을 가지게 된다. 해방 후 장로교회의 재건과 더불어 면려회가 부활되고 복음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흥기를 맞게 된다. 모든 교단에 앞서 총회(통합)는 평신도 대회를 조직하고 남전도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전도보다는 포괄적 선교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남선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최초의 본격적인 평신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글 | 최정선 장로

남선교회의 목적은

첫째로 그리스도로 받은 소명과 복종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를 제자로 부를 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다.

둘째는 선교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과 정의의 자유를 선포하는 중요한 행위의 믿음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자로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여 지적인 식별력과 도덕적인 판단력을 기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며 에베소서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니”라고 설명하듯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현실 가운데 시작하여 종말에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다섯째는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성 속의 탐을 높이 쌓지 말고 사회와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드리며 하나님의 선교가 사회와 세계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새문안교회 남선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러한 선교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길잡이가 되어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에 앞장서서 참여하여 7,8회에 석선진 장로가 회장에 중임되고 24회기 회

장에 고 이병완 장로가, 38회기 회장에 이용실 장로가, 44회기 회장에 고 이경식 장로가, 그 후 오랜 공백기를 거쳐 53회기 회장에 최정선 장로가 회장을 역임하여 새문안교회의 위상을 이끌어왔다.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처음 세워진 연합회로서 전국 66개의 남선교회연합회를 낳는 산파역을 감당했다. 남선교회연합회 사업을 열거하면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조찬기도회가 매월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의 회기를 시작으로 기독교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데 약 1,500명이 참석하여 국가와 민족과 분단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이른 아침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매년 5월부터 6주간에 걸친 조찬성경공부는 매우 진지한 성경강해로 성경의 깊이를 맛보는 충실한 성경공부 기회다. 아울러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자연을 푸르게 유지할 녹색선교단을 창설하여 산을 오르는 땀방울과 정성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뜻을 기리는 일이다. 또한 체육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남선교회 강북협의회



▲ 2011년도 제26차 조찬 성경공부 후 기념촬영

주최 체육대회는 4개의 종목으로 배구, 발야구, 족구, 줄다리기는 각 노회별로 치열한 응원과 열띤 구호는 경쟁의 의미보다는 회원간의 화합과 친선이 주목적이 된다. 당회기에 우리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가 우승하여 우승기를 찾아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수년간 실행하지 못한 몽골 선교지를 택해 진한 감동으로 해외선교를 이끌고 돌아왔다. 불모지와 같은 땅에도 하나님은 찾아 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눈물과 함께 몽골이 복음화되기를 기도와 찬양이 원주민들의 뜨거운 감동의 찬양예배가 푸른 초원에 울려 퍼진다.

군선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생애 처음 부모를 떠나 군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사가 힘든 일일뿐이다. 야외에서의 전투 예행연습과 밤에 느닷없는 비상으로 밤새 잠을 설치며 추운 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몸으로 막으며 날을 지새우는 것은 젊은 날에 감당할 수 있는 크나큰 아름다운 추억이련만 우선은 헤어나기 힘든 일이다. 이들을 위한 위로 예배와 진중세례는 베드로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다름없이 모두가 갈급하여 외치는 화답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다. 매달의 순회예배는 서울지역 38개교회와

양평지역의 대표등 25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며 남선교회 회원들이 각 교회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참석하여 주님 사업에 동참하며 늘 보는 얼굴들이나 만날 때마다 반가움이 가득하여 고맙고 즐거운 모습은 무엇보다 남선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간에 이루는 교제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서울노회 남선교회는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말씀대로 합력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총회를 차년도 2월에서 당년 12월로 조기 집행하기위해 회칙을 바꾸고 회장의 임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새문안교회 남선교회회원들은 교회내의 담당 업무의 과중함으로 시간을 쪼개기 어렵더라도 남선교회 연합사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 각 지교회 회원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새문안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



7주년 감사예배

“영거르승 델렁 질렁 토르쉬 새문안 몽골 초 클라닉 이베즈 우그승 보르항드 탈라르히!”- “지난 7년 간 새문안교회 몽골인예배를 은혜 중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주일) 제2교육관 101호실에서 오후 3시부터 있었던 몽골인예배는 평소와는 달리 7주년 기념 감사예배로 드렸습니다.

알탄치맥 목사의 설교(부르심: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를 드린 후 2부 순서로 지난 1년간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한 몽골인(알탄치맥, 남바이르, 예르카, 양진수령, 따와, 소가르볼드, 볼러르, 남토야)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해외선교부장 정호영 장로의 격려사, 김준홍 집사의 축사, 찬양 및 성극 등 순서로 진행되었고 끝으로 본당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3일 33명의 몽골인들이 모여 새문안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몽골인들이 이 예배를 거쳐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몽골로 귀국하여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



글 | 박종학 안수집사

땅
끝
까
지



▲ 본당 앞에서 기념촬영모습

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은혜를 받고 몽골에 돌아가 신학공부를 하는 몽골인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제3 교육관, 신관 유치부실 등을 전전하며 예배드리다가 2007년부터 현재의 장소로 정착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지도목사 없이 당시 서울 장신대 4학년 재학 중이던 알탄치맥 전도사(2010년 10월 서울노회로부터 목사 임직 받음)의 인도로 예배(당시에는 4부 예배에 참석-동시통역)와 성경공부가 진행되었고 2006년부터 여러 부목사들이 지도목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2006~2007: 강정호, 우수호, 최광열, 조원배 목사, 2008~2009: 이주형 목사, 2010~2011: 정영식 목사)

그 동안 100여 명의 몽골인이 본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었고 총 19명이 이수영 담임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해 시행하는 정기적인 행사로는 영성수련회(구정, 추석 연휴기간), 기념예배(3월), 야외예배, 연합예배(5월, 전국 여러 몽골인예배 참석자가 연합으로 예배), 몽골방문(6월, 10~15명의 방문단 구성하여 몽골 비전트립

시행), 성탄축하행사(12월)등이 있습니다.

몽골 비전트립은 5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몽골방문을 원하는 본교회 교우들로 방문단을 구성,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선교현황 듣기, 본교회 몽골인예배에 참석하다 몽골로 귀국한 성도들의 가정 및 직장심방, 머르다와 지역(울란바타르시 외곽 신도시)에 있는 가정교회에서의 예배, 몽골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2011년 방문(단장: 정영식 목사)때는 가정교회 내에 우물을 파서 통수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7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몽골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많은 예배 봉사자들이 체험하고 있으며 열성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는 몽골인들을 보며 큰 감동과 아울러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몽골인들이 새문안교회 몽골인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듯이 미래에는 몽골인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새**



▲ 감사예배중 찬양모습

몽골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목사 : 현재규 목사

몽골인 협력교역자 : 알탄치멕 목사

팀 장 : 박종학 안수집사

구역장 : 주동금 권사 부구역장 : 김순열 권사

팀 원 : 박정자 권사, 계국자, 박병근, 오진옥,

이규진, 김경희, 김영미, 박장미,

김광희, 강수환 집사

불교를 떠나 주님 품으로

먼저 이 나약한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불교 사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항상 부인했었습니다.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삶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탄치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나서 저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한편으로는 놀랐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나에게도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정말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많은 의문이 들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첫날부터 포근한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 속에 있었던 두려움,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었던 나쁜 생각, 두려움 같은 것을 없애주시고 편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지 2년밖에 안 된 저에게 하나

님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할거란 말을 들은 나약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나쁜 생각을 없애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 참 기쁨과 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저만 위하면서 세상의 나쁜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겠습니다.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글 | 몽골인 남토야 성도

겨울에서 봄으로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린 긴 겨울이다.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하 20도, 매일 눈이 내리고 있다. 러시아에서 보내는 겨울은 언제나 만만하지가 않다. 그러나 곧 봄이 올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러시아의 봄은 온 들판에 노란 민들레 꽃이 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봄은 아름다움을 넘어 찬란하기까지 하다. 우리의 인생도 혹한기 후 맞이하는 시간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겨울은 언제나 천국을 향한 마음을 더 그리게 한다.

나는 지금 파스한 사무실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문화센터를 짓는 동안 나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듯했다. 이 건물은 복음주의 침례교회가 10년 전에 국가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해 놓은 골격만 있던 것이었다. 이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함께 건축한 후 예

배실 공간을 공동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약속 하에 힘을 모았다. 구입 당시 건물은 마약의 소굴로 변하여 더럽고 냄새나던 공간이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물 골격 정밀 검사를 하자 상당 부분 골격을 뜯어

내게 되어 예상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만 했다. 또한 건축 시작한 후에 러시아 경제가 매년 7.8% 성장함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졌다. 두 번의 건축 회사와의 결별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수차례 시행착오 후에 건축을 직접 하게 되었



글 | 정균오 선교사



▲ 첫 예배



▲ 센터공사시작



▲ 태권도를 배우는 러시아 어린이들

다. 현장감독 겸 자재 구입, 인부 조달과 관리를 스스로 해야 했다. 인부가 부족하여 마약 중독자 갱생원생들을 썼고, 인부가 없을 때는 직접 인부로 일을 해야만 했다. 끊임없는 자재 도난 사건들, 법적 제재, 벌금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충들로 힘들었지만 죽어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치고 죽어야 할 텐데...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왔다. 건물이 온통 얼음으로 뒤범벅되는 겨울이면 문 입구에 비닐과 거적을 걸쳐 놓고 장작으로 불을 때며 공사를 했다. 지금은 뼈대만 있던 더러운 공간이 아름다운 건물로 바뀌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각종 세미나와 신학교 강의가 진행되고 아이들이 모여 태권도를 하고 한글을 배우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마무리 되었는지 실로 상상이 가질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문화센터에서는 매주일 오전에는 함께 협력하는 개혁신교회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르메니아교회의 예배가 드려진다.

개혁신교회는 러시아 성도가 150명 정도 되며, 그곳에 고려인은 약 20여 명이다. 고려인들은 내가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전도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는 뽀뜨르 담임목사, 알렉 목사, 미국 선교사인 짐과 한국인 선교사인 내가 같이 사역하고 있다. 우리는 중요 안건을 함께 의논하여 진행하고, 예배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주일예배 후에는 성경공부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고려인들과 외국인들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교회의 부활절은 정교회력을 따르기 때문에 4월 15일이다. 우리 개혁신교회는 센터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연극을 할 계획이다. 센터를 건축한 목적이 선교이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되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태권도실에서는 ‘태권, 하나, 둘, 셋.....’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한국말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고려인 태권도 사범인 레오니드가 일주일에 세 번, 주변 아이들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태권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아이들이다. 아이들 중에는 이슬람교도의 자녀도 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공간을 밟으며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혜영 집사님은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원어인 한국어 교사여서 인기가 높다. 센터 건축 후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교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볼고그라드 신학교는 삼국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새문안은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미국 선



▲ 두나미스 봉사

교단체에서는 신학교 운영비용을 후원하고, 러시아 교회는 학생을 모집한다는 3개국 교회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신학교에는 신학과와 기독교상담학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교회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학교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자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나는 러시아 복음화는 러시아교회가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러시아지도자를 키우고 신학교 역시 선교사가 주도하는 학교가 아닌 현지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선교사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문화센터에서는 현지 교회성장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모임들이 있으며 가정사역인 아버지학교, TEE 성경공부, 큐티 세미나, 생명의 삶 보급 등을 하고 있다. 특별히 가정사역의 일환인 아버지학교는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서점과 카페테리아를 제대로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문화센터는 작년 11월에 준공검사를 받고 사법법인 소유로 되어있던 건물을 종교 법인으로

이전 중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외압과 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스와 전기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건물 임대를 더 늘여 건물 운영비용을 자체해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준공검사를 마쳐 이제 정식으로 <문화센터 “제상의 빛”>이라는 현판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새문안교회가 러시아복음화를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으니 어딘가에 하나 표시를 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문화센터는 러시아교회와 한국교회 간의 선교 협력의 장이다. 또한 러시아, 한국, 미국 삼자 간의 협력의 장이다. 21세기 선교는 독자적인 선교가 아니고 현지교회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새문안교회는 협력 정신에 근거한 아름다운 선교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곳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러시아 현지 교회와 연합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거점이 되며, 고려인들이 모여 하나가 되며, 한국의 문화와 복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새**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

2007년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고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주님께서 부르신 인도 바라나시에서 선교사로서 첫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제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2년의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인도 바라나시의 국제예수전도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2년만 주님

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고 꿈꾸었습니다.

2년의 시간, 저는 저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동안 감추며 살았던 저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며, 그런 저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땅 끝까지



▲ 청소년과 함께



▲ 사역자들과 청소년이 함께한 인도 홀리축제 때

자존감이 높으며, 무엇을 하든 저의 힘과 지혜,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저의 능력과, 지혜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지혜,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저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통해 저는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한 저의 첫 선교의 발걸음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예비된 광야였습니다. 저는 그 광야를 통해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의지하였을 때 누리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수록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장기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2년 반의 단기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 선교사로서 1년의 준비 과정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의 훈련과 언어 훈련을 통해 선교의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사역 방향들을 점검하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1년의 시간이 참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께서 저에게 기름부으신 특별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어떤 영역에서 저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사역이 저의 부르심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 따라갔습니다. 1년의 준비과정 동안 예배를 통한 영적인 회복과 특별히 청소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와 제자 훈련의 스템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 기회들을 통해 저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예배에 대한 기름 부

으심과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바라나시는 예배의 땅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예배의 영역에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저는 2012년 인도 바라나시에서 두 번째 선교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에 돌아와서의 첫 느낌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마치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 느껴지는 편안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나시에 돌아와서 어떤 영역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하며 묻는 시간을 두 달 정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과 사역자들의 영적인 훈련, 예배의 부흥을 보여주셔서 저는 현재 청소년 모임과 훈련 파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베이스의 어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에서 15살부터 20살까지의 청소년들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1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현재는 19명의 청소년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2명의 현지 사역자와 함께 예배, 성경 공부, 청소년 프로그램(소풍, 댄스, 행사 등),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난한 가정 형편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으며, 삶의 꿈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예배를 통해 삶의 꿈과 소망을 예수님으로부터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올해 5월에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은 세미나(미니 예수제자훈련)를 열 계획

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청소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의 또 다른 사역은 훈련 파트입니다. 청소년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 2명의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과 베이스의 훈련 파트에 있는 사역자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그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말이 아닌, 삶으로, 성품으로 가르침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영적인 충만함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제가 선교사로서 첫 걸음을 땀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뒤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 주시는 언더우드선교훈련원 식구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격려와 지지, 후원이 지금의 장기 선교사인 저를 만들었습니다. 때론 제가 걷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고 보여주는 그분들의 격려와 중보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 없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어주시는 그분들의 축복은 저에게 늘 차고 넘쳤습니다. 그분들의 영적인 동행이 주님의 나라가 인도 바라나시 땅에 속히 임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Contact > cell phone: (91)8574324972

E-mail: 9938004@hanmail.net **새**

글 | 강정은, 인도 바라나시 YWAM 선교사

토요무지개학교 1학기 개강

3월 3일에 개강예배를 드린 <토요무지개학교>가 10일(토) 첫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지개의 일곱 빛깔에 맞추어 구성된 7개 교실 중에서 “뮤지컬 합창단”에 16명이 모여 뮤지컬을 연습하고 있고, 4월 22일(주일) 밤 찬양예배 때 부활절 뮤지컬을 새문안 성도들 앞에서 공연하고자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English Bible”은 초등123학년 교실 6명, 초등456학년 교실 12명이 모여,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신나는 스포츠 Part1. - 탁구”는 초등부 10명, 중등부 10명(청소년 등대학교)이 함께 국가대표 출신 박이희 전도사님의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탁구를 접해보는 아이들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새문안 탁구전도팀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조금씩 탁구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만나 암송교실”은 A반 12명, B반 9명, C반 10명이 모여서 부모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강사인 강동협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직학교”와 “어린이 세계관”은 4월 14일 첫 수업을 앞두고 계속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번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비전학교”는 4월 28일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80명의 아이들이 토요무지개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토요일등대학교> 역시 10일(토) 다시 개강하여 오전 9시에 9명의 학생이 모여 “스스로 학습법”, “스스로 영어청취” 수업을, 그리고 오후 1시에 초등부와 연합으로 “신나는 스포츠 Part1. -

탁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무지개학교> 및 <청소년 토요일등대학교>는 새문안교회 아이들에게 토요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교육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의 재능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새문안 학생들의 놀토 활용법

요즘 자녀를 둔 부모들과 학생들의 고민은 “주 5일제로 인해 늘어난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 보충수업과 학교 특별수업 등으로 학교를 나갈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문안교회 학생들은 다른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토요일 이른아침예배입니다. 고된 한 주를 마친 금요일 밤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학생들에게 토요일 아침 잠은 그야말로 꿀맛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새문안교회 본당에 오면 적지 않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선두에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교회 근처서부터 일산, 분당에서 첫차를 타고 나오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곳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20~30명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시작되는 '새문안 빛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찬양팀 연습 시간이 되면 연습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따라서 중등부 학생 1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토요일등대학교>와 <새문안 빛 독서실>을 잘 연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토요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선배들에게 배우고, 신앙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는 초등부 학생들이 토요일 이른 아침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각 부서별로 스티커를 받고, 그것을 모으면 연말에 시상하는데요,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받기 위해(?) 부모님을 깨워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도 어른들의 멋진 신앙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새문안 교회학교 학생들은 <토요일 이른아침예배>를 통해 멋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토요일 무지개학교>와 <청소년 토요일등대학교>를 통해 교회 테두리 안에서 자라나며,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을 통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청소년 Clean Day

3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사순절 청소년 Clean Day>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

음을 갖고,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함께 교회를 청소하는 작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중등부, 고등부 학생 교사 약 50명이 모여서 교회 본당과 신관, 계단 및 마당을 청소하였습니다. 청소 후, 교회학교 선배인 한 집사님의 후원으로 자장면 파티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뜻 깊게 보내고, 아이들에게 현재 새문안교회 예배당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

※ 4월 주요행사

1. 부활절 뮤지컬 공연

토요일무지개학교 뮤지컬 팀

"놀라운 소식, 기쁨의 노래"(최효정 극본, 안영신 작곡) - 4월 22일(주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무지개학교 뮤지컬 팀의 첫 공연! 많이 오세요!

2. 부활절 생명나눔주일(4월 8일)

마당찬양 및 부스 운영

	1부 예배 후	3부 예배 후	4부 예배 후
부서	중등부	고등부	무지개학교 뮤지컬팀

3. 초등456Ⅱ부 "어울림, 새문안 온 가족 예배"

- 4월 29일(주일) 4부 예배 / 본당

4. 교사교육원 교사 부모 특강

4월 22, 29일(주일) 15:00~16:30 / 언더우드 교육관4층

주제 :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미술치료방법>

강사 : 주리아 교수 (한양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장리 | 최요한 전도사(교육부·중등부)



아기학교 개강



01



02



03



04

- 01_ 아기학교에 온 친구들 환영 시간~
- 02_ 재미있는 자유놀이 시간
- 03_ 알록달록 무지개, 전도사님 손잡고
- 04_ 11기 아기학교 목요반

탁아 1,2부



01



02



03



04

- 01_ 성경학교 기념사진 탁아2부
- 02_ 성경학교 활동1 예배책 만들기
- 03_ 성경학교 활동2 예배사탕 따기 게임
- 04_ 성경학교 -탁아부



유아 2부 작은별 성경학교



01_ 내가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02_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03_ 신나는 어울림 신체놀이 04_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손 만들기
 05_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툭툭 06_ 인형과 함께 찬양해요

교회학적 신앙

유치 2부 작은별 성경학교



01



02



03



04



05

- 01_ 말씀을 배워요 02_ 신나는 비눗방울놀이
- 03_ 예쁜 모습으로 기도해요 04_ 하나님 사랑해요
- 05_ 항상 기도하고 찬양해요

Rainbow 토요일 무지개 학교 개강

3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새문안 식구들의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무지개학교가 개강 예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무지개 학교의 7개 교실에 속한 어린이와 부모 120여 명이 참석한 개강예배에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교사 등 새문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50여 명을 포함하여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중등부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함께 시작된 예배는 무지개 학교의 부장인 김홍수 집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1부장인 주광 장로의 기도 후 무지개학교 'Orange 뮤지컬 합창단'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교육1부 담당인 장석현 목사님의 '보석'이란 설교를 들으며 우리 새문안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간직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사를 통하여 토요일 무지개학교가 더욱 힘을 얻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부모

된 교회의 어른들과 자녀된 어린이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송을 부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한 무지개 학교의 개강 예배는 어린이들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로 달려오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속에서 출발한 새문안 토요일 무지개학교는 이제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들



글 | 최효정 전도사





의 신앙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새문안 토요무지개학교의 일곱 빛깔 교실(Red 가족비전, Orange 뮤지컬 합창단, Yellow English Bible, Green 신나는 스포츠, Blue 만나 암송, Navy 정직학교, Purple 어린이 세계관)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어린이 신앙 놀이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새문안교회 초등 456 I 부 어울림 수련회 추억 한 조각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학년이 되는 초등 456 I 부 이재빈 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 수련회에서는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2박3일간 하였는데요. 올해 새로 오신 '유송민' 전도사님이 기타를 가지고서 제가 초등부를 하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신나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문형우' 선생님께서도 함께 기타를 치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수련회에 간 친구들은 모두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같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눈물 흘리며 찬양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그런 상황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으로 울동을 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신이 나고 정말로 기쁨에 웃으며 전도사님과 부장님, 부감님,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회에 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날은 모두가 하나되어 '어울림'이라는 주제대로 찬양을 하였고 둘째날 저녁에는 찬양이 아닌 기도 중심의 집회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년

간 수련회에 참석했지만 처음으로 친구들과, 가족들, 선생님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6학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함을 느꼈으나 4,5학년 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중등부에 올라가도 잊지 못할 신앙의 경험과 추억이 많은 수련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



글 | 이재빈 (초등 456 I 부)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던 날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

지난 2월 25일(토) 오전10시-12시, 언더우드
 교육관 B 317에서 초등부 기도회, 온(溫)이 열
 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함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의 기억을 되새기면, 감사와 기
 쁨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자녀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
 며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습니
 다. 김은선 전도사(초등123 I부)와 교사들의
 밝은 미소로 시작된 기도회는 유송민 전도사
 (초등456 I부)의 '싱글싱글 병글병글' 즐겁고
 신나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
 다. 이어 최효정 전도사(초등123 II부)의 '특별
 한 평범함'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은 우리의
 척박한 마음 밭을 축축이 위로해 주었고, 김성

경 전도사(초등
 456 II부)의 눈
 물 뿌린 기도회
 인도는 간절한
 소망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
 쁘게 받으셨을
 줄로 여겨집니
 다. 함께 기도했
 기에 가능했습
 니다. 함께 마음
 을 나누었기에
 큰 힘이 되었습
 니다. 귀한 발걸
 음 위에 부여주

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을 가져다주었고, 함께한 모든 이들의 눈시울
 을 적셨습니다. 특히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자
 녈들이 만나게 될 학교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께 맡기며 자녀 평생의 삶을 위해 간절함으로
 간구했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자녀를 위하여 절실하게 기도해야



글 | 김은선 전도사(초등123 I부)



할 때임을 아는 30여 명의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와 교역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따뜻함을 공유했기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전신갑주를 입힐 수 있었고 세상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온기도회’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와 자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 학기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일 년에 두 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따뜻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진행될 초등부의 사랑, 온기도회! 꼭 함께해 주십시오. **새**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로

아이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라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마음을 만져 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으며 기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그리고 동균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한 어린이들에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너희



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들의 길을 축복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새** 글 | 이은희 (초등123 김동균 엄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초등부 ‘온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규가 중등부 수련회에 갔기에 소형이와 몰래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온기도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데이트 장소를 마련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히 요즘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또 새 학기를 맞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많이 불안하고 힘들던 차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새문안의 할머니,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반성도 했습니다. 준비하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만 알기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

글 | 최성연 (초등 456 1부 심소형 엄마)

‘신앙의 대잇기’ 운동 – 어울림 가족예배 : 4월 교육주제 ‘기쁨’

* 어울림 단계별 통합교육은 월별 한 주제로 교육을 함으로 세대간 통합교육을 이루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월별 주제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예배입니다. 매월 교육 주제에 따라 새문안지에 제공되는 가족 예배 순서지에 따라 한 달에 한번 온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대잇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필자 주)

인도 | 가족대표

여는 기도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사도신경다함께
 찬 양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다함께
 성경 봉독 누가복음 24장 13~35절인도자
 말씀 나눔 '죽음'을 이기고 '기쁨'을 주셨어요말씀이
 기도 나눔 및 기도다함께

온가족이 부활절 생명이눔 주일에 초청할 귀빈들을 위해,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족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자: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가족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인도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는 귀한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가족이 다함께

▶ 주제 해설 - 기쁨

하루하루 기쁨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만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매일을 돌아볼 때, '기쁨'의 근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의미로 기쁨은 자신이 바라던 대상이나 목적등을 현재 소유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유쾌한 상태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속에서 기쁨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쁨은 자아실현에 있지만, 기독교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

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한 응답이며 나아가 특권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이 기쁨을 맞본 제자들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4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는 즐거움인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전하는 새문안 온 가정 되길 바랍니다.

▶ 말씀 나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은 어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이 비었다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천사를 보았다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은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떡을 썰 때, 비로소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하자 그들을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주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4월을 맞이하며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온 가족 되길 바랍니다. **새 글/ 교육부 어울림 교육팀 제공**

어울림 가정예배 현장을 찾아서 - 이용훈(중등부), 이지윤(초등123 | 부)



▲ 아빠 이승균 집사, 엄마 이영란2 집사, 아들 용훈, 딸 지윤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잠언 등을 읽기도 했었는데 둘째 지윤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초등123부에 나간 이후로는 새빛지를 교재로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모이라고 하면 모두들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모입니다. 복음성가나 찬송을 부른 후, 교재에 따라 주제 말씀을 읽고 문제를 풀고, 토의하라고 한 부분은 각자의 의견도 나눠보고, 연극 대본으로 된 부분은 역할을 나누어 연극을 하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기도는 돌아가면서 담당을 합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면 마다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용훈이 지윤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윤이는 자신의 순서가 아닌 날도 기도하고 싶어 하여 기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기도 듣다 보면 때로는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엄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말씀 및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연극도 하면서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3월에는 하나님이지지만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가 할 일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을 통하여 서로 더 많이 대화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춘기가 되어 말수가 줄어 든 용훈이도 예배시간에는 재잘재잘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합니다. 특히 토요일에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되어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용훈이, 지윤이의 말을 듣는 순간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집이 가정 교회로 변화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위원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림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기쁨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드린 기도의 응답을 하나 하나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예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아이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용훈아, 지윤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그러면 아이들은 앞 다투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배! 찬양!” **새 글 | 이영란2 집사**

동계수련회와 이삭줍기

“좋은 관계”라는 주제를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1부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영육간의 심을 누리는 현리 수양관에서 값진 교제의 시간을 보낼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찬양시간을 통해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일정에 몸은 다소 피곤했지만 라준석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 영 만큼은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강의내용 중 “사랑은 손해 보는 것이다. 내가 챙기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는다. 버리고 포기하고 손해 보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은 과연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나? 어떻게든 손해 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 그들을 밀어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때때로 이기적이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 지치고 나타해져 있던 제게 “하나님 섬기는 일과 사회적 일에서 열정을 쏟아라.” “빠르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강의 중간에 진행되는 조별 나눔 시간과 조원들의 협력으로 풀어나가는 미션게임을 통해 그동안 얼굴만 알고 어색하게 지냈던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이곳에 모인 청년1부 모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식구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1서 4장 12절)

우리 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속해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새문안교회 형제, 자매들 만큼은 수련회를 통해 배우고 느낀 ‘좋은 관계’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회복으로 시작해 점차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목사님과 임원단과 찬양팀과 큰 힘이 되어주신 지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랑이 가득한 새문안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 클 | 유지은 (86뜨레)**



JOO JEON JA

주님을 전하는 자



안녕하십니까? 지면을 빌어 저희 청년1,2부의 소식지 <주님을 전하는 자(이하 주전자)>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전자>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청년2부 소속 김재형입니다.

<주전자>는 2006년 청년1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도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창간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까지 매월 또는 격월

로 꾸준히 발간하며 청년1부 회원들에게 좋은 글과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2011년에 들어오며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어 1년 간 휴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월, 재발간 된 <주전자>는 이전과는 달리 청년2부의 소식까지 아우르는 청년1,2부 연합 소식지로 재탄생 했습니다. 매월 또는 격월 발간을 목표로 2012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월호와 2,3월호, 두 차례 발간했습니다. 현재 상반기는 4,5월호와 6월호를 만들기로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주전자>를 위해 수고하는 청년1,2부의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글을 쓰거나 원고 청탁을 담당하는 기자가 세 명, 편집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들이 다섯 명, 그리고 주전자에 글을 연재 중이거나 연재할 예정인 객원 칼럼니스트들이 네 명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부의 문서선교팀과 함께 연합하여 교육2부 연합소식지(제목 미정)를 시작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 창간을 목표로 기도와 노력으로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힘쓰는 <주전자> 편집팀원들이 우리의 이름처럼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질적, 양적, 영적으로 발전하며 나아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글 | 김재형 (청년2부)

36+ 보금자리, 청년3부

결혼 평균 연령 상승 추세

2012년 초 뉴스에 사회적으로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학력·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미혼과 비혼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2005년 사이 미혼 여성 비율이 30~34세는 10.5%에서 19.0%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런 현실에서 30대 미혼 여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인식개선과 전도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국민일보)고 합니다. 여성보다 조금 더 늦게 결혼하는 남성들도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30대 후반의 교회 생활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은 다년간 왕성한 부서 임원 생활과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결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청년 부서에서 졸업하기 1년전 2009년 말 35살 나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만나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교육2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2부를 졸업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교육 2부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매달 복지관 봉사활동과 일대일 성경공부 섬김이를 맡아 영적 갈급함이나 외로움을 적게 느꼈던 것은 편이나 다행이었습니다.

길 잃은 미운오리?

청년 2부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종종 교회 마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청년 2부에서 초기 졸업제도를 시행하면서 몇몇의 멘토 선배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선배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체에서 나이가 차서 졸업하는 지체들 외에 교회에



글 | 김주원 회장(38세)

처음 나오는 지체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의 지체들과 결혼은 했지만 아이들이 없는 부부들의 출산과 육아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으로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공동체 생활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부서의 나이 제한으로 영성 훈련이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과 교제의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던 청년들은 양육과 나눔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싱글과 신혼부부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희 청년 3부는 교회 내에서 만 36세 이후 싱글, 신혼부부들에게 이러한 갈급함을 해소해 주고자 성경공부, 제자훈련, 세미나, 친교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매달 3주차에는 일대일 제자훈련을 집회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받



는 청년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 3부에서 제자훈련학교 프로그램이 없어 집회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이 시간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청년3부는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인 내적 치유와 영성회복을 돕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은혜롭고 책임적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 속에 교회로서의 역할인 치유와 회복의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이를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서로간의 기도를 통해 은혜가 넘쳐흐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3부의 예배와 교제의 방향을 개인적인 내적 치유와 영성 회복을 도우며 가족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여 서로간에 멘토링과 영적 충만을 도모하고 서로간의 도고 기도를 활성화하여 자기 자신에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청년3부와 비슷한 공동체로는 사랑의 교회 '기드온'과 온누리교회 '브릿지33+'이 있습니다. 이들은 30-40대 미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호응이 높고 매년 다수의 커플이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3부는 신생부서

청년 3부는 1월에 신설되어, 2월 중순부터 임원들이 세워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와 청년 3부를 진행하면서 바쁘게 일정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청년 3부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았나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임이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조출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들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아마도 홀로 서기가 몸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치도 내 중심에서 조금은 옆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청년 3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욘 8:7)"

아직은 미약한 청년 3부이지만, 청년 3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생각을 하며 꿈을 꾸니다.

봄이 왔지만 봄을 느끼기엔 아직은 초봄의 추위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어느 샌가 모든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고 따뜻해지는 봄이 오는 것과 같이 아직은 부서 신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하고 갈급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도고하고 아픔과 기쁨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힘으로 기독교인으로 사회에 나가 홀로서기 하는 데 든든한 버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 1.하나님이 세우신 청년 3부를 주관하여 주시길,
- 2.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 잃은 미운 오리 지체들이 백조가 될 수 있도록,
- 3.청년3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지도위원님들에게 건강과 영적 풍성함을 주시길,
- 4.청년3부 임원과 리더들의 기도와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를 바랍니다. 새

기도가 즐거운 벚들

“나를 왜 홍보부에서 만나자 할까?” 하시며 너 무나도 궁금한 얼굴로 나타나셨다.

누가 언제나 봐도 부드럽고 온화한 맑은 얼굴 이신데 “왜 여기 오는데 무섭지요?” 하신다. 저 런!! 교회안에 무서운 부서가 있다니, 그것도 홍보부가? 그건 아니요 아니 되오.

자원봉사부의 날,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났다. 자원봉사부가 생기고 처음으로 호스피스 팀장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해서 금미주 권사를 만나게 되었다. 먼저 하루의 일과를 물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남편 집사가 3시에 권사님은 3시 20분 기상, 4시 5분 전에 집을 출발하면 4시 5분에 첫 버스를 탄다. 4시 35분에 교회 도착, 새벽기도회가 시작 할 때까지 기도와 본문말씀 읽는 것으로 예배 준비를 한다. 1부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5시 30분, 2 부를 계속해서 참석하기도 한다. 이 시간 후로는 올해 한나 여전도회 친교부장을 맡아 연세 많은 분들 병환심방, 전화심방, 별세, 임종에 입관, 발인, 경우에 따라서는 먼 길이라도 장지에 간다.

목요일에는 경로대학이 있고 요즘은 교회건축 을 위한 반짝 바자회가 지속적으로 있어 시간 좀 있고 교회에 온 김에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많다. 70세가 넘는 한나 여전도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표액을 정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금을 하는 중이다. 지난해는 1000만원을 목표했으나 전 회장(김명옥 권사)의 추진력이 합해져서 1500만원을 만들어 현금했고 올해는 다시 1500 만원(회장 이은화 권사)을 목표로 정성을 모으고 있다. 이 날도 마른 새우를 팔고 잠을 못 자서 오후가 되니 머리가 핑 돈다고 하신다.

봉사로 인도하는 기도

우리 교회에서 호스피스교육이 생기기 전에 이 미 정동교회 무지개 호스피스교육을 27기로 마친

상태였다. 어떻게 해서 호스피스의 길로 들어가셨던 것일까 물었다. 큰딸이 병으로 4년을, 셋째 아이는 의술도 없고 약도 없는 병으로 그대로 누워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기도 하세요”라는 처방만을 받아들고 돌



금미주 권사

아셨던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 성적은 1등급에 기대도 컸던 아이, 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기도생활은 안 한 것도 아닌데, 청천벽력 같은 일, 앞이 캄캄한 이런 일을 어찌 있게 하시나? 가까운 개척교회에 가서 부르짖었다.

10년을 걱정하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에서 부르짖다 보니 사생활이 없어지고 밤사람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체 내장까지 전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기도의 응답으로 딸도 다 나아 결혼하고 교회 봉사를 하며 살고 있게 되었다.

그 기도 10년을 마치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은혜에 충만하여 원자력병원에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다. 거리가 멀지만 찾아다니며 기도했다. 그곳에서 100명을 영혼 구원 하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드디어 1999년 100명이 넘게 되어 강북 삼성병원에서 봉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기도하는 호스피스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교회 안에 호스피스 프

로그래미 생기면서 팀장을 뽑는데 투표로 선출했다. 권사님은 팀장으로 뽑혀 팀원들과 어우러져서 재미있게 잘했다. 아마 5기까지 하고는 교회 안에서 자체교육을 다른 곳으로 위탁되었다. 호스피스 수료자를 요청하는 7개 병원에 파견하고 가까운 곳으로 자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 한 달에 몇 시간 개개인 봉사 통계를 올려 자원봉사부에 입력을 했다. 시간이 쌓이며 보람도 느꼈고 과정을 밟으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며 의욕도 생겼다. 순수한 호스피스 봉사는 금지하는 것들이 많다. 먹을 것을 받는 것도 금전적인 사례도 금지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돌 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명예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 호스피스의 기도를 허용하는 병원도 있지만 강북 삼성병원 같은 곳은 기도를 엄밀히 한다. 뇌졸중, 암 말기환자, 교통사고환자, 진통제도 안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권사님은 호스피스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호스피스 다라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단순한 호스피스 역할만 하기에는 환자들의 기도요청이 너무도 간절했다.

늘 기도하고 찾아가니 여러 가지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감격적인 경험도 많이 했다. 삼성병원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건대병원에 가서 1년 자원 봉사를 계획적으로 했다. 건대병원에 호스피스를 설립하고 영역을 넓혀 교육받은 사람을 보내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건대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정책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봉대 감는 것, 침대 갈아주는 것, 냉장고 청소 등 노력봉사만을 운영했다. 이제는 은퇴 하게 되어서 마쳤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그 동안 권사님은 말기환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로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한다.

함께 기도하는 즐거운 벗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인생에 기도로 동행을 해주는 벗이 있어 즐겁고 든든하



▲ 1910년부터 사용한 본당의자에 앉아 -사료관에서 좌부터, 장미옥, 금미주, 유영래 그리고 뒤에 김명옥 권사

다는 고백을 한다. 6년 전부터는 네 사람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유영래 권사(81세), 장미옥 권사(80세), 김명옥 권사(76세), 금미주 권사(73세)로 장소는 김명옥 권사 삼청동택이다. 금요일 밤 11시만 되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모여 철야 기도를 한다. 철야기도 다음날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교회로 와서 드리고 마무리를 한다. 이라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즐겁다는데 기도하고 즐겁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듣기에 새롭다.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늘 교회, 하나님의 종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다. 나라가 어렵든지 좋든지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만 큼이라도 되지 않았나 하고 자위할 때도 있다고 한다. 권사님은 또한 한국의 여성들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다는 에스더 기도회의 찬양대 총무도 맡고 있다. 김명옥 권사가 4년간 회장을 한 초교파적인 기도모임으로 도라교회와 통일촌교회 두 곳을 번갈아가며 한 달에 둘째 주 월요일에 기도회를 갖고 그를 위해 매주 월요일 찬양연습으로 모인다.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라, 교회, 새성전건축, 새생명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영원한 기도의 벗들을 만나 보니 하나같이 묘한 매력의 미인들이시다. 무엇 때문일까? 이 미인들이 쓰는 화장품은? 기도? -기도미인들! 새 취재·글 | 이송리 권사

미인이라니... 신나...

아기학교에서 주는 큰 선물

봄인가봐요? 보세요! 따사로운 햇살 가득... 받아가세요. 그렇게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그래도 봄인가 봐요. 바람은 아직 강하게 불지만 그리 차갑게 느껴지지 않은 것 보면 봄인가 봐요. 겨울을 견뎌 낸 새싹에 따사로운 햇살이 어루만지고, 보드랍게 드러낸 하얀 꽃잎에 햇살이 부서져 내리면 순식간 우리의 마음과 느낌도 봄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 봄기운 물씬 풍기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기대하며 나풀나풀 알록달록한 새싹, 하얀 꽃잎 같은 아기들을 맞이합니다. 아기의 눈높이를 맞추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기쁨과 사랑을 보지요. 모든 것이 서투른 한돌이, 두돌이, 세돌이... 그러나 이 아기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는 봄인가 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아기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를 통하여 모든 사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 행동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는 과정을 거친 아기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기에 아낌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땅에 고꾸라질 정도로 인사하는 예의바른 아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호기심 많은 한돌이, 놀이 도구에 유난히 애착을 갖는 두돌이, 놀이 프로그램에 잘도 따라하는 세돌이, 수줍어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얌전이,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울음이 터지는 눈물이, 찬양하며 춤추는 덩실이, 분리 불안을 가진 사랑이도 이곳에서는 행복합니다. 같이 노는 법, 노래 울동을 배우면서 부쩍 말도 늘고, 재롱도 부리고, 인사는 점점 나아지겠지요?

언제나 일찍 도착하는 아은 자매와 지후는 덕

양구에서, 꽃샘추위에 퐁퐁 싸매고 오는 민우는 광진구에서, 늦을까 봐 아예 일찍 오는 예안이는 분당구에서, 승우 명리 하진이는 도봉구에서 같이 오고, 상진이와 창우는 할머니랑 오는데 여기의 아기들은 풍선 하나만 있어도 깔깔거리며 웃는답니다.



▲ 오른쪽 맨끝이 최기향 권사

다. 방울 소리, 천둥 소리, 비 오는 소리, 실로폰 소리에 귀는 쫓긋, 시선 집중, 엄마랑 흔들다 스텝, 시소놀이, 눈을 보세요 짝꿍놀이, 호기심놀이, 단체놀이 달팽이집과 투외송을 할 때는 엄마와 아기가 한마음이 되어 들썩거리지요. 선생님 따라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무지개를, 따스한 햇살을, 고마운 땅에 동물과 꽃들을, 시원한 바다에 물고기들을 꾸미는 작은 손!!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때,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랑이 가득한 아기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기들이 지혜와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지는 행복한 새문안 아기학교에서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가득 받아가세요! **세 글 | 최기향 권사(아기학교 부장)**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프리모 칸판떼는 통일을 기원하며 유학파들이 조직한 합창단

봄 기운이 완연한 지난 3월 20일 저녁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프리모칸판떼 제15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프리모칸판떼(primo cantante)는 최고의 남성 성악가들이란 뜻으로 한국 성악계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남성 성악가들이 모여 뜻을 하나로 모아 노래하는 연주단체이다. 1997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15년째되는 이 그룹은 작곡가 안정준 선생님을 중심으로 통일기원을 모티브로 하여 창단 연주를 시작했다. 유학생들을 마치고 돌아와 강단에서는 남성 성악가 70명이 모여서 시작하였고, 1년 1번씩 미래를 향해 간다는 의미에서 신년음악회를 하고 있다. 당시 30대의 청년들이 이제는 40~50대의 중년이 되어 더 원숙해진 모습으로 화려한 공연을 펼쳤는데 이 단체의 상임대표가 바로 우리교회 하나찬양대 지휘자이며 국민대 교수인 고성호 안수집사이다.



▲ 프리모칸판떼 합창단에서 공연하는 고성호 집사

“1980년 후반부터 해외연주 및 유학이 많아졌고, 보통 유학을 나가게 되면 5년 이상 머물게 되어 그 시기 나간 세대들이 1990년대 후반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계의 신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함께 뜻이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공연 외에도 다양한 해외 공연을 했는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97),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대성당 공연(98), 중국 상해 국제 음악회 초청 공연(99), 중국 심양 대공연(2000), 중국 북경오페라 갈라 콘서트(01), 중국 심청 교민초청 대음악회(06) 등이 있었다. 2009년에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콘서트를 했으며 작년에는 미 8군 군악대와 함께 공연을 하

며 한국전에서 사라져간 젊은 영혼들을 송고한 뜻을 기념하기도 했다. 이들 멤버들이 유학파로만 구성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 고성호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는 대부분 유학을 다녀 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듯이, 외국에 나가서야 분단된 조국에 대한 절실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감정을 나눴던 사람들이 모여 통일 기원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심정을 나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고성호 대표는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의 파르마 국립음악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통일기원의 뚜렷한 명제를 가지고 시작한 프

리모간판떼의 큰 목표 중에 하나에 대해 고성호 대표는 “북한의 성악가들과 모여 공연하고 싶습니다. 저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만들어 내는 것은 젊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고요. 평양 공연을 몇 번 시도 했었지만, 국내 상황과 북한의 상황에 따라 민감한 사항이라 좌절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언젠가는 평양에 가서 노래하고 통일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변신을 추구

클래식 음악이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클래식의 고전적 위엄을 지키면서도 대중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성호 대표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클래식과 다른 음악의 벽이 두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벽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크로스오버가 많이 시도되고 있고, 팝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도 열렸지요. 예전의 선생님들은 큰일 나는 일로 알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객석이 알고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석이 아는 것의 수준을 점점 높이는 것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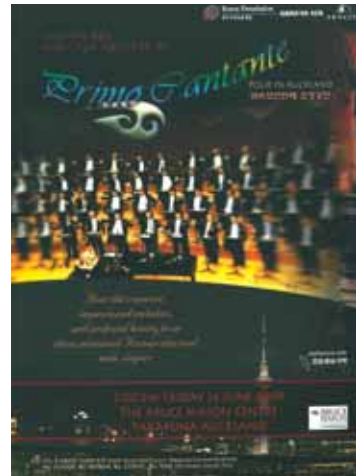
의 과제이지만, 관객이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러도 그 순간 좋더라 하고 잊히게 되죠.”

그러한 면에서 이번 공연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공연으로 보인다. 2500석을 꽉 채운 음악애호가들이 단원들의 입장 때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는데 끝날 때까지 그 열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프리모간판떼의 단골 MC는 미녀들의 수다로 유명해진 크리스티나가 벌써 여러해 전부터 맡고 있다. “파마하고 제일 잘생긴 우리 자기가 누군지 찾아보세요.”라고 깜찍한 멘트를 항상 하는데 그가 제1테너 김현준씨다. 밀라노 유학 당시 만나서 결혼까지 한 인연이 있어 지원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지휘자의 등장부터 남 달랐다. 최근 KBS의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보 지휘자인 김태원의 스승으로 출연하여 국민 멘토가 된 윤학원 지휘자는 인천 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이 합창단을 세계정상급으로 올려놓은 합창계의 거목이다. 첫 곡을 연주할 때 윤 지휘자는 한복에 열린 핑크색 두루마리를 입고 나와 관중을 열광하게 했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들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팀파니와 국악 모듬 북을 연주하는 두 명의 고수들도 독특한 의상으로 주의를 끌었다.

<아! 대한민국>이라는 첫 번째 곡은 태극기의 4괘인 검곤감리의 4부로 되어있어 하늘, 땅, 달과 별을 상징하는 변화무쌍한 합창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 윤학원 지휘자



▲ 크리스티나와 김현준

장엄한 서두를 열었다. 이어 바이올린 독주와 듀엣이 있었는데 이 듀엣 곡은 W.스콧의 소설 《라메르무어의 신부》(1819)를 원작으로,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세력다툼에 희생된 한 쌍의 연인의 비극을 그린 도니체티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다. 이어서 찬양곡 3곡을 선보였는데 모든 단원들이 교육과 연주 활동을 하는 프로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성호 대표처럼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곡들이지만 성악가 겸 지휘자들이 부르는 찬양은 청중들의 감성을 한껏 고양시켰다.

예능 “끼”를 마음껏 발휘한 2부 공연

중간 휴식 후 이어진 2부 공연은 그야말로 “끼”의 향연이었다. 이흥렬 곡 〈부끄러움〉을 부를 때는 왼 쪽 끝에서 슬그머니 나온 독창자가 개그콘서트 사마귀유치원의 유행어 “이이~뽀”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가 청중들을 폭소하게 했는가 하면,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부를 때는 크리스티나가 깜짝 출연하여 간드러진 몸매로 동내 청년들의 구혼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테너 6명과 바리톤 5명으로 구성된 작은 프리모칸판떼 (Piccolo Primo Candante)는 축배의 노래, 여러분, 산타루치아 그리고 만화영화 주제곡 모음 들 등 다양한 곡들을 코믹한 연기와 함께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하여 관중들의 환호와 폭소를 이끌어 냈다. 고성호 대표는 이런 대중화 작업에 대해 “장르

가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겠지요. 선생님들 사이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악과 뮤지컬과 같은 분야의 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경우도 가까워 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야 대중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터부시했던 그것이 오히려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로, 더 많은 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설명했다.

조국과 민족을 다시 생각하게 한 마지막 〈선구자〉 합창

마지막 순서인 오페라 합창은 폭넓게 사랑받는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레(음유시인) 중 집시들의 노래인 〈대장간의 합창〉, 역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합창〉 그리고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의 〈히브리노예들의 합창〉을 앙콜 곡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모든 합창곡들을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베르디는 고통받는 서민과 하층민들의 애환을 그려냈을 뿐 아니라 나부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생활의 고통과 해방의 소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열망들을 그려냈다. 베르디는 이 대본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서글픔이 엄습해왔다. 너무나 괴로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고백한 바 있다. 나부코는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당시의 바빌론의 왕 느브카드네사르 2세를 이탈리아식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마지막 앙콜 곡인 〈선구자〉를 청중과 함께 그리고 150여명의 제자들이 무대 위쪽에서 함께 부를 때 정말 아! 대한민국을 외치는 듯한 감동이 물결쳤다. 히브리 민족의 고통과 일제하의 한민족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게 하여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두고두고 여운이 남는 신춘의 밤 음악회였다. **새** 취재 인터뷰 | **유재현** 정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리조이스 그 눈물꽃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리조이스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청장년부 소속입니다.
작년 2011년부터 청장년부의 운영방식이 회장 체제에서 진장 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저희 리조이스 조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장인 저와 악기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남균 집사, 보컬 팀장으로 진주환 집사, 매주 성경공부 팀장으로는 김은숙 집사가 맡았습니다. 8명의 보컬 (김지영, 진주환, 서민우, 임연수, 우선영, 윤지선, 김영정, 김택훈)과 5명의 악기팀 (김남균, 강동식, 김은숙, 류미현, 김재홍) 그리고 악보와 p.pt. 담당 (정인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매주일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 아래 서있길 힘쓰고 주중연습을 합니다. 또한 모든 집회와 단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매주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이든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모든 단원들이 리



글 | 김지영 집사



찬양하며 감사하며

조이스 찬양 사역 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열심히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을 내는 단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합니다.

저녁 집회 때마다 늦게까지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아이들의 양보와 배우자들의 배려, 그리고 일터에서의 시간을 쪼개 주님께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리는 단원들의 열심으로 한 주 한 주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이 올 때까지 깨어 있고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성경 속의 지혜로운 여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혼자 힘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줄지 않고 기다리기 어렵지만, 단원들과 함께라면 서로를 깨워주며 힘들 때 위로와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격려, 그리고 칭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찬양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의 많은 리조이스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리조이스 후배들이 세워질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지치고 꺼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이끌려 예배당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찾게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새문안 본당으로 들어오는 꿈 말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희 리조이스 찬양 선교단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성도 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찬양팀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011년 객원 찬양단원으로 열심히 수고하신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많이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새

변경된
기독교 용어
바로쓰기

42

사모 → 사모님

예로부터 스승을 높여 사부님이라 했으며 이에 걸맞게 스승의 부인을 높여서 사모님이라 불렀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 부인도 사모님이라 부르고 있다. 선생이 자신을 사부라 부를 수 없듯이 선생이나 목사도 자기 부인을 사모라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가 자기 부인을 가리켜 사모라고 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집 사모는 다녀왔지요.” 또한 선생 부인이나 목사 부인들도 자신을 사모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목사 부인들이 모여서 “사모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사모회”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 부인들이 자신을 사모라 지칭했기 때문이다. 이 “사모”는 주로 제자나 평신도들이 선생 부인이나 목사 부인을 높여 불러 주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될 때는 “사모님”이 될 수밖에 없다. 새

*칼럼 〈변경된 기독교 용어 바로쓰기〉의 내용은 한국장로교 출판사에서 제작한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에서 발췌. (편집자 주)

새교우 Album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강소영
5교구 청년부
인도자 박성욱



김경란
3교구 3여전도회



김도연
4교구 청년부
인도자 이빛나



김문경
1교구 6여전도회



김병철
3교구 7남선교회



김설화
6교구 청년부
인도자 주동민



김유란
7교구 청년부



김은아
6교구 청년부
인도자 이애리



김은옥
5교구 3여전도회



김종수
1교구 7남선교회



남현정(2)
3교구 대학부



노지혜(2)
7교구 청년부



문주현
1교구 대학부



서기운
9교구 청년부
인도자 태명옥



신원
2교구 청년부
인도자 이애리



심재인
6교구 청년부



안유정
6교구 대학부
인도자 김현심



오치환
1교구 5남선교회



윤나미
6교구 청년부



이경민
1교구 6여전도회



이상엽
4교구 대학부
인도자 이जे이



이세광
2교구 대학부
인도자 김마리



이옥자
3교구 1여전도회



이웅희(2)
5교구 7남선교회



이재연
3교구 대학부
인도자 김민식



이정순

5교구 한나여전도회
인도자 고규옥



이주진

3교구 7남선교회
인도자 홍혜진



장대통

5교구 청년부
인도자 오윤성



전경희

5교구 청년부
인도자 이빛나



정윤균

8교구 2남선교회
인도자 조현숙



조도근

3교구 3남선교회



조예상

7교구 대학부



주찬양

3교구 대학부



함은주

5교구 7여전도회



허남천

5교구 청년2부



홍혜진

3교구 7여전도회



황문순

3교구 6남선교회

강소영(5교구 청년부) 교우를 포함해 37명의 교우가 3월 새교우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우동정



• 양현숙 집사

종로 5가 광장시장 내에 한복전문점인 “양현숙 한복”을 개업하였다.(주소 서울 종로구 예지동 6-1 광장시장 특관 식품부 2층 603호)

쌀 한 톨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 놓고 무게를 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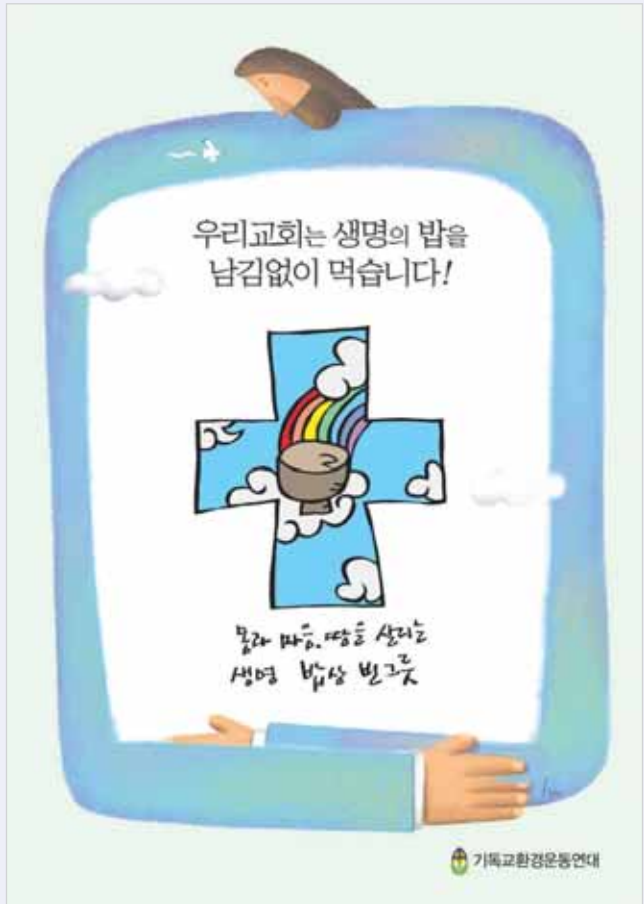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숨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보이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새**
(쌀한톨의 무게 노랫말 중에서)



당첨자 추천



▲ 3월 당첨자를 추천하는 차장 이순자 권사, 2월 당첨자 권혁중집사

새문안교회는 2007년부터 생명의 쌀 나눔 기독교 운동의 협약교회입니다. 1년 중 부활주일, 환경주일, 창립주일, 추수감사주일 등 4주 네 차례 친교실에서는 생명의 쌀로 밥상을 차리기로 협약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퀴즈 Puzzle!

• 온 가족이 다 함께 풀어봅시다.

• 성경퀴즈는 <개역개정판> 성경전서에서 출제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⑨ 초대 예루살렘 교인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 다 바리기로 약속하고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어 두고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인 벌로 급사한 사람. 삽비라의 남편.
- ⑩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 가인의 아우.
- ⑪ 느헤미야 시대 바벨론에서 귀국한 하그돌림의 아들.(느11:14)
- ⑫ 납달리 자손이 받은 지역 중 한 곳(수19:33)
- ⑬ 아벳의 일곱 아들 중 막내(창10:2)
- ⑭ 노아의 손자로 함의 넷째 아들(창10:6)
- ⑮ 스바와 드단의 아버지(창10:7)
- ⑯ 디달이 통치한 나라(창14:1, 9)
- ⑰ 리비아 해안의 이름. 얇은 모래 바닥이 자주 변하므로 항해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곳. 모래톱이라는 뜻이 있다.(행27:17)

- **마감일** 2012년 4월 29일
- **보낼 곳** 제3교육관 203호 홍보출판부
- **이름**
- **주소**
- **연락처**

세로 열쇠

- ① 거지 선지자 아합의 아버지(렘29:21)
- ②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곳으로 가서 전도 하라고 하심(행23:11)
- ③ 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계2:8~11)
- ④ 레위지파 고라의 셋째 아들(출6:24)
- ⑤ 살롬 왕을 죽인 이스라엘 왕 므나헴의 아버지(왕하 15:14~17)
- ⑥ 다윗시대 베냐민의 지도자. 아브넬의 아들.(대상 27:21)
- ⑨ 요셉과 그 형제와 애굽인들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하여 가면서 이곳에 멈추어 7일 동안 울었다하여 가나안인이 지은 이름(창50:10~11)
- ⑩ 유다 자손 여라므엘의 둘째 아내로 오남의 어머니(대상 2:26)
- ⑫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기업 중 한 곳(수15:22)
- ⑬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 르우벤 사람 시사의 아들(대상11:42)
- ⑭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눅3:2) 가아바의 장인이며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 사람의 심문을 받았다.(요18:13)
- ⑮ 아람의 넷째 아들(창10:23)

가로 열쇠

- 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
- ④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서신을 보낸 지역(고후1:1)
- ⑦ “무슨”, “어떠한 이유로”의 아람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 중 한 마디 “엘리 엘리 OO 사박다니.”
- ⑧ 바로의 딸 유다 지파 메릿의 아내(대상 4:18)

3월호 정답자는 총86명입니다. 성경퀴즈 정답자분들께 생명의 쌀 나눔 기독교 운동 본부에서 유기농 쌀 10kg을 2월호부터 3분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호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로 계속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퀴즈 196정답

빌	립	보	서		와	나	
라		김		마	스		뱀
델	라		두	아	디	라	
비		아	기	스		가	보
아	가	이	고		우		헤
	브			엘	르	아	사
브	리	스	길	라		다	
	엘	닷		사	박	다	니

정답자 명단 (3월 추천 당첨자 양인석 이정심 홍성주)

강양자 권혁중 김귀자 김금만 김금자 김덕례 김명순 김복희 김선영 김순자5 김영태
 김옥련 김옥순 김은숙 김은실 김정숙 김정욱2 김정자2 김지은 김창란 김혜자 남옥자
 민영숙 박명숙6 박병숙 박옥례 박은하 박인숙 서신웅 성낙금 송선자 송은숙 송재모
 송재은 신선자 신선희 신영희 신외숙 심수현 안병원 양옥주 양인석 양인자 양정웅
 양혜석 오순준 오순희 오은희 우재은 유수희 유창근 윤지영 윤혜정 이경화 이계희
 이미화 이민자 이복숙 이복희 이수남 이순애 이재옥 이정심 이종애 임성준 장경자
 장정원 전명숙 정수자 정정이 정지혜자 정형자 정홍자 정희연 조규례 주영림 차의원
 차일환 채주희 최금수 최복현 최형표 태원식 현수원 홍성주 홍지영

교회사료관 모퉁이돌 서비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새문안교회 125년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새문안교회 사료관은 전시관 구축과 기록물 관리를 시작하는 국내 많은 교회들의 지표로서,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활동 지원과 타 교회 교인과 일반인들의 역사탐방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12년도 교회사료관 주요 사업으로 「모퉁이돌」 SNS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교인의 신앙과 삶에 유익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교회 역사의 주요 장면들을 각 월의 행사, 사건 등에 맞춰 교인에게 E-mail로 발송하고 트위터, Facebook, 사료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곁들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facebook : 새문안 사료관],
[트위터 : @SaemoonanArchiv]

〈지금까지의 서비스 내역〉

- ① 새문안교회 이름의 유래 : 왜 '새문안' 인가?
- ② 언더우드와 함께 입국한 성경책 : 이수정 역, 《신약마가복음서언해》
- ③ 잡지《새문안》창간호
- ④ 독립운동가 김규식 장로
- ⑤ 언더우드가 편찬한 찬양가

- 사료정리 사업은 작년의 1차 사료 정리(문서 위주)에 이어 2차 사료 정리와 DB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2차 사업은 주로 사진과 중요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디지털로 사료를 저장 · 분류하여 앨범 제작 후 사료관에 비치 열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추후 전자 사료

관(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1차 작업이 되어 분류 코드별로 정리된 사료들은 올해 사료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축 되는데로 기록물 평가 기준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 새문안과 한국교회 역사에서 귀중한 의미를 지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소장품 기증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께서는 소장 중인 교회 역사와 관련된 자료 기증을 적극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회 재건축과 때를 같이하여 교회사료관이 광화문 빌딩 2층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지금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시준비전문위원회가 이전 준비 중입니다. 진일모한 구성 컨셉과 입체적 디스플레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화 하여 전시관으로 꾸미겠습니다.
- 올해는 새문안교회 창립 125주년입니다. 이에 맞추어 하반기에 기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문로 일대의 서울역사박물관을 위시한 모든 박물관(사료관)들의 연합행사인 '새문길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일반인에게 새문안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사료관 방문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1월 19개의 단체(총 445명)가, 2월 27개 단체(총 487명)에서 사료관을 찾았습니다. 증가하는 외부 방문객과 더불어 우리 교인의 일상화된 관람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

개관시간 : 화~금/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단체관람의 경우 방문 전 미리 교회사료관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새문안교회의 역사와 주요 사료에 대한 해설(20여분 소요)을 해드립니다. <담당 간사 권미정, 02731-2820>

독자의 소리

♣ 독자의 소리 1

《새문안》 3월호 16쪽에 있는 은퇴장로회 기사중 “은퇴장로회 회장이신” 김경산 장로라는 구절은 “은퇴장로회 전 대표이신”으로 바로잡습니다. 현재 대표는 최영진 공로장로입니다. 은퇴장로회는 새문안교회의 당회원으로 시무하다가 은퇴한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은퇴장로회 회원들은 당회에서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헌법에 규정된 공식 기관입니다.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출생연도순으로 대표가 되고 같은 해에 출생한 경우에는 임직순으로 말합니다. (최영진 공로장로)

♣ 독자의 소리 2

광고지 같은 느낌은 사라졌다. 길장도 좋다. 분량이 많아졌다. 읽을거리가 있다. 연중 기획 좌담회 같은 것은 주제에 비해 지면이 적다. 다른 좌담회와 비율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인터뷰기사가 많아 메시지가 있다. 제목들이 좋아졌다.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좋고, 문예창작반과 시창작반이 교대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도 지켜지고 있다. 후반부로 가서 문단마다 락 것은 마땅치 않다. 시라면 몰라도 산문인 경우에 역사를 뛰어넘는 다든지 이야기의 반전을 기하는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락는 법은 없다. 단절된 느낌이 있다. 일부 필자의 문체가 장황한 맛이 있다. 문장을 짧게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장로의 추모 면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혜원 공로권사)

♣ 바로잡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칼럼의 기사 중 102쪽 오른 쪽에 한옥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에 관해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는 여러 원로및 제직들의 지적에 따라 조사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을 앞두고 “어느 집사가 교회에 헌납했다는 한옥”은 교회 앞 제2교육관 (구 메리야스 빌딩) 동편에 있는 2층 양옥과 그 뒤에 있는 작은 한옥을 말하는 것이며 교회가 기증받아 현재 제3교육관으로 쓰고 있다. 또한 “사찰집사가 사택으로 쓰고 있고 주일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한옥”은 역시 한옥이 아니고 2층 양옥집이었고 위치는 현재의 신관 서쪽에 있었으며, 그 당시 이미 새문안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60평 정도 되는 그 땅이 금호빌딩 부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된 후 금호빌딩의 한 층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다.

따라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 기증한 건물과 새문안 소유였던 것을 금호그룹이 매입했던 건물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건물이었는데 **같이 한옥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편집장)

우리 《새문안》은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잡지입니다. 독후감도 좋고, 새로운 제안도 좋습니다. 특히 교회 역사에 관련되어 증언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편집장)



편집 후기

♣ 《새문안》지는 교우끼리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내주어 새문안을 알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낼 곳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1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미 수십 명의 청년들이 여름 휴가 무렵에 봉사하러 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직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참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탈북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편집 마감을 앞두고 알탄치맥 몽골인 예배 담당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숨졌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유재현)

♣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4년마다 찾아오는 봄날의 총선을 반겨 맞는 것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깨어 있는 한 표로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기를. 어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또 어느 시인은 꺾대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으라고 했다. 알맹이만 남고 꺾대기는 가라.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4월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날 이 땅의 4월을 말없이 연민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안재찬)

♣ 《새문안》지를 읽고 독자의 소리를 보내주시는 분들, 학부모의 마음으로 인권조례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의 정리를 송선해주시는 분들 모두께 감사합니다. 잘 모아 좋은 지면이 되도록 기획하겠습니다.(이승리)

4월의 교회력 | 기도의 달

1일(주일)	제직회, 8교구(헌)
8일(주일)	부활절(찬)
15일(주일)	봄 부흥사경회
22일(주일)	6남6여 연합(헌)
29일(주일)	7교구(헌)



부활의 첫 증거인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증언합니다. 빈 무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잘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처럼 비운 마음 속에 성령이 주인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신앙고백의 장소로,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재현한 빈 무덤입니다.

(표지 글 | 편집장)

2012년 4월호 통권 284호

2012년 4월 1일 발행

교회창립 _ 1887년 9월 27일

발행처 _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인 _ 이수영

편집인 _ 유재현

지도목사 _ 강동협

편집장 _ 유재현

편집위원 _ 안재찬 민현식 이승리

자문위원 _ 맹정희 구말희 이순자

취재기자 _ 강선애 김규환 김두연 김현찬 이윤욱 이창진
이철용 최종문 홍덕화

교열팀 _ 민은홍 황신덕 강선애

사진팀 _ 이덕일 박인영 김범섭 한소희

디자인팀 _ 김영미 한소희 손상은

간사 _ 김혁주

등록번호 _ 서울 라09085 등록일 2001. 7. 25

인쇄처 _ 세종예술기획(02-2273-4455)

주소 _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42

전화 _ 02-731-2816, 738-5996

팩스 _ 02-733-8070

E-Mail _ hongbo@saemoonan.org

Homepage _ www.saemoonan.org



4 ()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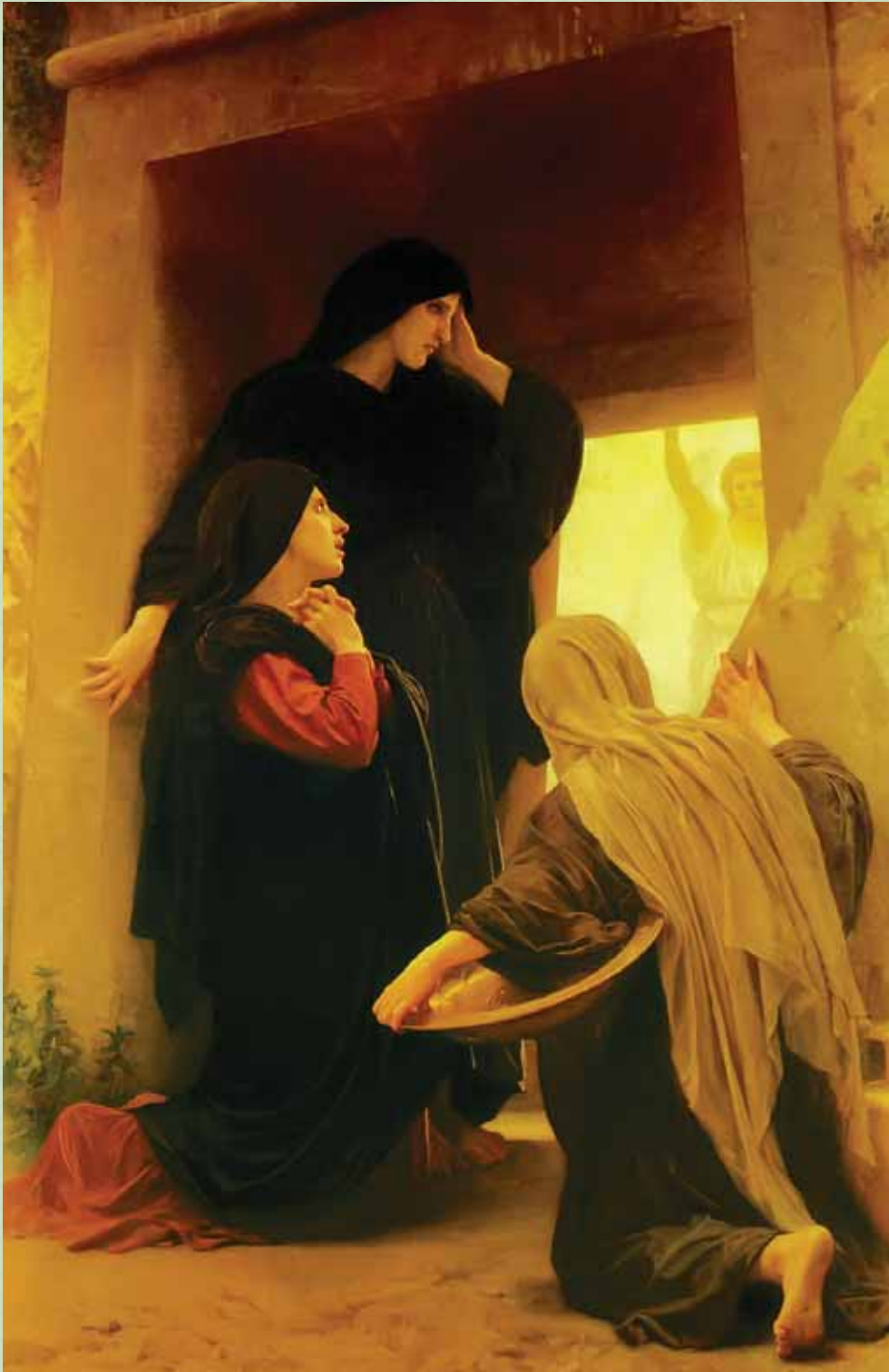
4,752

P H O T O News

3 25 () 1 ~ 4

28 , 65
11 1 2





(28 1 -6)

1.

가

2.

가

3.

4.

5. 가

가

가

가

6. 가

가

가



William Adolphe Bouguereau (1825 - 1905)

) : 가 (, 1850 , 4 , 1853
1857 1 . 1876
800

